

인천 시민 여러분

# 안녕하세요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러 주세요.  
사람 사이 거리는 두 팔 간격을 유지하고,  
30초 손 씻기와 기침 예절을 생활화해 주세요.  
매일 두 번 이상 환기시키고, 주기적으로 소독해 주세요.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만은 가까이.  
조금 더 안녕하면, 모두가 '안녕'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까지,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세요!

# 굿모닝인천

MAY 2020  
INCHEON MONTHLY MAGAZINE  
VOL.317

## 05

가정의 달 - 부평구 굴포천





2019.05



2019년 한국프로야구 개막전.  
관중들의 뜨거운 함성으로 야구장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2020.05



2020년 한국프로야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5일, 관중 없이 개막한다.

## 고요 속 함성

구장을 울리는 뜨거운 함성도, 치어리더의 현란한 응원전도, 관중을 하나로 묶는 파도 타기도 없다. 2020년 한국프로야구가 5월 5일, 관중 없이 개막한다. 고요 속 함성이 뒤흔드는 ‘인천SK 행복드림구장’에서는 인천 연고 프로야구단 ‘SK 와이번스’가 한화 이글스와 맞붙는다.

구도球都 인천. 1920년대 한국인 야구단 한용단이 지금의 제물포고 자리인 ‘웃터골’에서 경기할 때면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울고 웃으며 하나 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야구 에 죽고 야구에 사는, 열정을 바치는 이들이 있어야 경기도 뜨겁다. 해마다 프로야구 시즌이면 구장을 가득 메우던 야구팬들도, 푸른 그라운드와 그 위에서 솟은 불꽃같은 홈런포가 그림다. 하지만 괜찮다. 야구도 인생처럼 단판 승부가 아니기에. 내일은 또 내일의 시합이 있기에.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05

MAY 2020  
Vol. 317

### 발행처

인천광역시

### 발행일

2020년 5월 1일

### 발행인

인천광역시장

### 인쇄인

신봉훈(소통협력관)

### 편집인

백상현(소통기획담당관)

### 총괄편집국장

김진국

### 편집장

정경숙

### 편집위원

김윤경

### 사진

김성환·류창현·최준근

### 디자인·제작

웨스트코(주)

###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54-6280000-000080-06



읽어주는 굿모닝인천  
음성 지원 이북 바로가기



<굿모닝인천>은 웹진(www.incheon.go.kr/goodmorning), 인터넷 서점의 전자책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지의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 표시·상업적 이용 금지·변경 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본지에 게재된 일부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인천광역시의 입장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굿모닝인천>은 무료로 배포합니다. 구독, 주소 변경 및 해지 문의 인천광역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6

## CONTENTS

- 04 인천 미소  
인천 시민이라는 큰 자부심 외
- 06 인천의 맛  
⑨ 영흥 바지락
- 12 인천, 사람  
⑤ 배우 박상원
- 16 코로나19 대응  
지원 대책 / 자가격리
- 24 메이커스, 인천  
④ 셸트리온
- 28 ‘인천시 홍보대사’ 가이드  
강화 나들길
- 32 인천 VS 세계 도시  
③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VS 사우스 코스트 보타닉 가든
- 36 시민 시장  
인천e음카드 100만 번째 가입자 신승목
- 38 내가 사랑하는 인천  
언론인 신용석
- 40 힘내라 인천 시민  
ON-AIR 인천
- 42 이미지 뉴스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
- 44 시정 뉴스  
집단시설 코로나19 표본조사…전국서 처음 외
- 48 의회 뉴스  
코로나19 대응 의회비 반납
- 50 드로잉 인천  
인천 앞바다
- 52 인포 박스  
착한 임대인의 따뜻한 마음을 응원합니다 외
- 56 인천 능력 평가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 영역
- 57 仁生 사진관  
이상한 5월
- 58 인천의 아침  
부처님은 왜 처음 인천으로 오셨을까
- 59 몽(夢)땅 인천 II  
중구 옛 경동 금성목욕탕 건물

보고 싶다  
<굿모닝인천>

듣고 싶다  
‘시민 목소리’

# 인천미소

인천시 미디어  
인천시 인터넷방송 tv.incheon.go.kr  
인천시 인터넷신문 ‘i-View’ enews.incheon.go.kr

인천시 SNS  
검색창에 **인천** 을 입력하세요.

- www.facebook.com/incheon.gov
- blog.incheon.kr
- 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twitter.com/incheon\_gov
- story.kakao.com/ch/incheoncity
- ‘인천시 미디어’
- www.instagram.com/incheon\_gov
- www.weibo.com/incheon

## 인천 시민이라는 큰 자부심

코로나19 특집호로 마련된 <굿모닝인천> 4월호를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인천시의 다양한 정책 추진과 노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천의료원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인천 시민으로서 자긍심도 갖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다양한 소식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에덴 서구 서달로

## 인천은 제 2의 고향

결혼하고 인천에 정착한 새내기 ‘인천댁’입니다. <굿모닝인천>을 통해 몰랐던 인천의 역사와 시민들의 다양한 삶을 엿볼 수 있어 좋습니다. 지난 호에서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내용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인천에서 새롭게 출발한 시민으로서 애乡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명창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 이름 속에 담긴 숨은 의미 찾기

이름이 갖는 의미는 다양하고 흥미롭습니다. 인천도 이러한 이름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행정 명칭, 자연 지명이나 명소가 가진 이름 등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보고 부르는 인천 속 다양한 이름들에 대한 유래를 알려주는 코너를 신설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천을 빛낸 인물에 대한 코너도 마련되면 좋겠습니다.

백태현 서구 장고개로

## 균형 있는 도시, 균형 있는 소식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시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도시입니다. 그런 만큼, 두 지역의 소식 또한 조화롭게 담겼으면 합니다.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등 상대적으로 정보량이 적은 원도심에 관한 소식도 자주 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젊고 활력 넘치는 인천을 만들기 위한 청년 지원 내용이나 정책 정보도 유용할 듯합니다.

민정호 남동구 만수로

소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 우리 동네



## 자연 그대로의 자연, 가현산

글 이상은(서구 마전동)

서구에서 오를 만한 산을 찾아본다면, 금곡동에 위치한 가현산을 꼽을 수 있다. 높이 215m의 높지 않은 산이지만 조선 시대 조상들이 이론 한남정맥, 한강을 축으로 해 남쪽으로 따라가는 산줄기에 속한 의미 있는 산이다.

가현산의 명칭 유래는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코끼리 머리의 형세를 닮아 ‘상두산’으로 일컬어졌고, 침이 번성해 ‘갈현산’으로도 불렸다고 한다. 지금은 서쪽 바다의 낙조와 황포돛배가 어우러지는 빼어난 풍광을 감상하며 거문고를 타고 노래를 불렀다 하여 ‘가현산’으로 고쳐 불리게 됐다고 전해진다.

가현산은 인천 서구는 물론이고 김포 양촌읍에서도 오를 수 있는 등산로가 갖춰져 있어 가벼운 산행을 즐기는 등산객들에게 인기가 높다. 봄에는 진달래가 만발해 계절의 정취를 만끽하고자 정상에 자리한 진달래동산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 서낭당고개를 시작으로 세자봉과 약사궁을 거쳐 정상에 닿는 데는 40분 남짓 걸린다. 코스에 따라 더 길게도, 더 짧게도 산행할 수 있는 친근한 가현산. 몸과 마음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싶을 때 한 번씩 올라 땀 흘리며 걷다 보면 그야말로 힐링이 된다.

때로는 등산로를 잘 정비한다면 지금보다 많은 이들이 더 편하게, 더 자주 산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반면에 바람 불고 비 내리는 날씨 그대로, 돌맹이가 구르고 나뭇잎이 흐드러진 지금 모습 그대로가 자연과 제대로 호흡하는 길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비록 요즘은 산에 오르는 발걸음이 조금 무겁지만 곧 가벼운 마음으로 가현산에 올라 싱그러운 자연의 기운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오리라 믿는다.





인천의 맛

공존의 바다에서 캔

# 영흥 바지락

1kg에 2,500원.

찬바람 맞고 갯벌에 뒤엎켜 건져낸, 삶의 무게.



인천만의 ‘그 맛’이 있다. 지역 음식에는 고유한 환경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 그릇 똑딱 비우고 끝낼 일이 아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인천의 산과 들에서 자라고, 바다와 갯벌에서 펄떡이고 있을 먹거리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맛을 기록한다. 그 아홉 번째는 개발과 보존 사이, 공존의 바다에서 캔 영흥 바지락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영흥면 선재리 바닷가.



## 어머니의 섬

• 어머니의 섬이다. 나의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6·25전쟁 때 배를 끌고 황해도 웅진에서 영흥도로 왔다. 바다는 주인이 따로 없었다. 땅을 잃은 사람들은 고향에서 멀지 않은 바다에 기대어 살아갔다. 동네 이름도 북에서 이르던 ‘가막개’로 지었다. 손에 물이 마를 날 없도록 갯것을 캐 내다팔고, 안동네 사람들이 농사지는 쌀과 바뀌 살림에 보탬다.

그래도 외가는 배를 부려 사정이 나았다. 외할아버지는 바다 깊숙이 들어가 물질하는 해남海男, ‘머구리’였다. 사람들을 모아 멀리 백령도, 대청도까지 가 전복, 해삼을 따와 하인천 부둣가에서 중국집을 하는 차이나타운 상인들에게 팔았다. 외할머니는 평생 차디찬 바람 맞으며 갯벌에 뒤엎켜 살았다. 물때만 맞으면 밤이고 새벽이고 바다로 나가 호미질을 해, 갯것을 잔뜩 이고 집으로 오곤 했다.

그 덕에 어머니는 고무신 대신 운동화를 신고, 책 보자기 대신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 다녔다. 어머니의 여섯 형제도 모두 육지로 나가 공부할 수 있었다. 먹고사는 형편은 좀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물기 어린 삶이 다르진 않았다. 어머니 역시 태어난 순간, 바다로 나가는 삶을 숙명처럼 짊어졌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작고 어린 손으로 바지락을 긁어다 살림에 보탬다. 섬 아이들은 그 힘든 일이 놀이인 줄 알고 다 그렇게 자랐다. 어머니는 일찍이 도시로 떠났지만, 대부분 평생 바다와 한 몸이 되어 살았다.



## 갯벌, 전기와 바깥다

어린 시절 기억에 외갓집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멀었다. 연안부두에서 배 타고 큰 시곗바늘이 한 바퀴는 돌아야 당던 섬을, 이제는 다리로 건너간다. 세상이 변해도 바다는, 섬은 그대로일 줄 알았다. 하지만 2004년 7월, 화력발전소가 세워지면서 섬의 운명이 바뀌었다.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다리도 놓았다. 2001년 11월, 영흥대교로 선재도와 이어지면서 ‘섬 아닌 섬’이 됐다.

“바지락이 안 나니 힘들어. 이렇게 캐서 어디 먹고살겠어.” 아직 찬바람이 부는 사월의 어느 날, 농어바위 해변. 영암어촌계 계원들은 바다가 품을 열자마자 이른 아침부터 갯벌로 달려 나갔다. 한창 바지락 수확 절인데도 소득이 영 시원치 않다. 1kg에 2,500원. 사리 내내 일해도 손에 대략 3만원이 쥐어진다. 바지락을 쓰레질하듯 주워 담던 시절도 있었다. 지금은 씨조개를 뿌려 다시 거둬들여도, 전만 못하다. 이름 그대로 농어가 많이 잡혀 풍요롭던 바닷가엔, 오늘 빈 굴 껍데기만 모래처럼 밟힌다.

“발전소가 세워지고 바다가 달라졌어. 그게 끝인 줄 알았는데 신항이 들어서고 또 달라. 펄이 있어야 갯갯이 사는데, 다 빨려 들어가 이제 잡을 수가 없어. 그래도 먹고 살아야 하니, 이리 나와.” 임정일(77) 할아버지는 이 섬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살다 다시 돌아왔다. 강산이 세 번 바뀐 사이 고향도 달라졌다. “땅이 변했어.” “딱딱해졌지. 갯벌이 다 깎여 내려가지고.” 썰 새 없이 꼬챙이질을 하던 어르신들이 정적을 깨고 저마다 답답한 마음을 푼다. 육지에서 멀찍이 떨어진 바다의 벌판은 고요하다. ‘사그작사그작’ 호미질 소리만이 들려온다.



‘영흥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은,  
섬의 토박이 정윤기 영암어촌계장(위).

“고맙다. 먹고살게 해줘서.”  
할머니의 흙 문은 얼굴에, 말간 웃음꽃이 번진다(오른쪽).



## 자연과 개발, 그 가치의 무게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 전깃불을 켜고, 섬사람들도 잘 살게 해줄 ‘보물덩어리’. 화력발전소를 섬에 들여놓으면, 다리도 놓아주고 뜨신 물도 맘껏 쓰게 해준다고 했다.

정윤기(49) 영암어촌계장은 학교 다닐 때 말고는 섬을 떠난 적이 없다. 그는 ‘영흥의 격동기’를 온몸으로 겪었다. 다리가 놓이기 전에는 섬의 모든 게 풍요로웠다. 배 타고 멀리 나가지 않고 바닷가에서 그물만 던져도 농어, 광어, 우럭이 척척 걸려들었다. 1990년대 중반, 한국전력공사(한국남동발전)가 섬에 화력발전소를 12기나 세운다고 할 때, 격렬히 맞서다 철창에 갇히기도 했다.

“풍요롭던 바다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개발에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을 지키며 발전하자는 거예요. 바다가 아프면, 땅도 죽습니다.” 바지락은 모래와 펄의 비율이 8대 2 또는 7대 3인 곳에 자리를 잡는다. 영흥도 일대가 최적지였다. 하지만 바람, 물결, 조석이 바뀌면서 갯벌이 사라져갔다. 섬 어르신들이 호미 하나 들고 자식들 키워내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누가 잘했다 못했다 말할 수 있나. 세월 따라 모든 게 변한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 섬사람들의 눈물겨운 ‘생존의 장’은 오늘 육지 사람들의 ‘체험의 장’이 됐다. 젊은이들은 매일 아침 햇살을 받으며 바다 대신 발전소로 향한다. 갯장난하며 자라던 섬 아이들은, 큰 배가 오가는 신항을 바라보며 내일의 꿈을 키운다. 그렇게 섬사람들은 어떻게든 바다와 맞닿아 살아갈 것이다. “그간 많이도 캐 먹었지. 고맙다. 먹고살게 해줘서.” 허리 한번 펴지 않고 호미질을 하던, 진흙투성이 할머니의 얼굴에 말간 미소가 번진다.





시원, 담백하다  
바지락



“많이 캐 먹었으니, 이제 씨 뿌려야지.” 시월의 어느 날, 영흥 선재도 바닷가에서 트랙터 군단을 만났었다. 이날, 200여 주민이 모여 바다에 바지락 씨를 뿌렸다. 어린 바지락을 굵어다, 자랄 수 있도록 넓은 바다에 뿌리는 작업이다. 바지락은 봄이나 가을에 씨를 뿌리고 이듬해 4월부터 5월까지 캐낸다. 봄에 나는 바지락은 살이 탱글탱글하다. 양식이라도 자연산과 다르지 않다. 바닷물에 잠겼다 드러났다 하는 고된 성장 과정을 거치며 바다의 풍미를 짙게 채운다.

바지락은 서해안 일대, 인천에서는 영흥도에 주로 서식한다. 백합과에 속하는 바지락은 시원하고 개운한 국물 맛이 특징이다. 영흥도에서 나는 바지락은 일본에 수출할 정도로 맛이 뛰어나다. 크기는 작아도 살이 꽉 차 있고 단맛이 나며 부드럽다고, 영흥 사람들은 입을 모은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류창현 포토디렉터

바지락 별미  
누름이와 고추장찌개

아는 사람만 아는, 이 섬의 비밀스러운 음식이 있다. 바지락 누름이다. 옛부터 영흥도 사람들이 즐겨 먹던 보양식으로, 찹쌀에 바지락을 넣고 죽처럼 푹 끓여 먹으면 가슴속까지 든든하다. 영흥대교를 지나자마자 왼편 바닷가에 있는 식당 ‘하늘가든’에 가면 이 음식을 맛볼 수 있다.

바지락 고추장찌개도 일품이다. 2002년에 이 집에서 처음 만들어 판 후, 이제 섬 집집마다 보글보글 고추장찌개를 끓인다. 바지락을 넣고 푹 끓인 육수에 집에서 담근 고추장을 풀어 넣은 맛이 칼칼하니 식욕을 돋운다. “시어머니께서 바지락에 채소와 고추장을 넣어 볶아 드시는 걸 보고, 국물을 더해 얼큰하게 끓여 먹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허복순(66) 대표는 36년 전, 인천의 명동 신포동에서 영흥도로 시집왔다. 아득한 수평선을 바라보며 ‘한 2년만 살다 육지로 나가야지’ 하다, 어느덧 섬에 눌러살게 됐다. 야무진 손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그가 꾸리는 식당은 섬의 명소가 됐다. “<굿모닝 인천>에 나와서 실시간 검색 1위 하면 좋겠어요.” 섬 아낙의 얼굴에 함박웃음이 가득 차오른다.



● 하늘가든  
옹진군 영흥면 영흥로251번길 24  
☎ 032-886-3916



● 영흥도바지락해물칼국수  
옹진군 영흥면 영흥북로 195  
☎ 032-886-3644

그래도  
바지락 칼국수

빨간 고무 ‘다라이’에 우르르 쏟아져 담긴 바지락이 해감을 기다리고 있다. 바다 한가운데 핀 ‘꽃섬’이 내려다보이는 바닷가에 자리잡은 칼국수집의 뒷마당. 김순배(65) ‘영흥도바지락해물칼국수’ 대표가 오늘 농어바위 해변 근처에서 잡아온 것들이다. 처제와 함께 3시간 동안 26kg, 삶의 무게를 거뒀을 것이다. “바지락 살이 달라요. 부드럽고 달아. 낙지고, 굴이고 이 바다에서 나는 건 다 맛있어요.” 김 대표는 20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아내 김정애(64) 씨의 친정이 있는 이 마을로 왔다. 먹고살 궁리를 하다 부지런하고 음식 솜씨 좋은 아내를 믿고 칼국수집을 차렸다. “난 칼국수를 안 먹어요. 어릴 적 가난해서 물리도록 먹었거든. 그런데 칼국수 장사를 하네요.” 남들이 자는 시간에도 일하며 앞만 보고 달렸다. 지금 자식들 잘 키워내고 서울에 아파트도 마련했으니, 이만하면 성공했지 싶다. 그사이 아내의 얼굴은 주름지고 손은 두툼고 거칠어졌지만, 표정은 편안하다. “저 바다를 봐요. 인색할 수 있나. 마음이 절로 여유로워져요.” 음식에도 그 넉넉한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진다.

칼국수는 2인분만 시켜도 서넛은 나눠 먹을 정도로 푸짐하다. 냄비에 살이 잔뜩 오른 바지락을 가득 넣고 우르르 끓여낸 맛이란. 3~4시간의 정성을 들인 국물은, 그 맛이 깊고 풍부하다. 주름미더덕 ‘오만둥이’를 넣어 시원함이 더하다. 면발도 적당히 쫄깃하게 끓여져 씹는 맛이 좋다.

오늘도 부부는 뜨거운 불솥 옆에서 묵묵히 음식을 만든다. 특별할 것 없지만 언제 먹어도 맛 있는, 문득 그리워지는 맛이 그 섬에 있다.

그날 영흥도 바닷가에서 캔 바지락.  
20여 년 섬에서 식당을 꾸리는 사이, 아내의 고운 손은 거칠고 두터워졌다.







인천 안에서  
크게,  
세상을 품다

박  
상  
원

오늘 배우 박상원의 일상은 서울, 더 넓은 세상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그가 친선 대사로 구호 활동을 하는 세계 여러 나라도, 창작 활동에 몰두하는 시도의 작업실도, 인천과 맞닿아 있다. 처음엔 스스로 선택하지 않았지만 다시 이끌려 왔다. 그에게 인천은 ‘운명’이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김성환 포토저널리스트



그의 고향은 대구, 집안이 가장 어려울 때 부모님 손에 이끌려 인천행 야간 열차에 올랐다. 부모님의 마음은 차창 밖 세상처럼 암담했지만, 소년은 여행을 떠나듯 설렘이었다. 물론 떠밀리다시피 살게 된 낯선 도시의 삶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친구들과 야구가 있어 행복했다. 서울로 이사한 후에도 그는 2년을 더 인천에 머물며 긴 통학 길을 감당해 냈다. 하지만 머지않아 그는 학창 시절의 추억과 함께 정든 도시, 인천을 떠나야 했다.

오늘, 공연 무대부터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드는 대배우이자 대학에서 후배들을 가르치는 교수 박상원의 집은 서울이다. 그의 삶은 현재 서울을 중심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한 도시에 머무르기엔 그의 시선이 닿는 세상이 넓고, 세상을 향한 애정은 깊다. 그 시작점은 운명처럼, 다시 인천이다. 인천에는 그가 ‘사랑하는 세계’로 향하는 인천국제공항이 있다. 그에게 공항 너머 세상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몸과 마음을 쏘아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곳.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친선대사로서 20년 넘게 품어낸 삶의 한 부분이다. 웅진군 시도에는 그림을 그리고 사진 작업도 하며 창작 활동에 몰두할 수 있는 작업실이 있다. 이 모든 것들과 운명처럼 연결된 인천은, 그에게 일상만큼 중요한 의미다.

“처음엔 스스로 인천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인천은 나의 현재와 미래의 공간이 됐지요. 운명적이에요.” 소년 시절 생애 처음으로 마주한 미지의 세계, 인천에서 시작된 새로운 인연. 그 만남과 함께 그가 품은 세상도 점점 더 커져갈 것이다.

대학 1학년 때  
송도 바닷가에서.





캔버스 안에 그려진 박상원(왼쪽).  
아프리카의 남자. 그는 20년째 ‘월드비전’ 친선 대사로 활동 중이다(오른쪽).



인천에서 학창 시절 대부분을 보냈지요. 어떤 학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집 형편이 가장 어려울 때  
였지만, 저는 굉장히 밝은 학생이었어요. 고1 때까지  
작은 편이었는데, 늘 큰 애들 틈에 끼어 다녔지요. 그  
냥 어울려 다니는 게 좋았던 건데, 눈에 좀 띄었던가  
봐요. 그때 노는 학생들이 모이는 밴드부에서 저를 굉  
장히 욕심냈어요. 도망 다니느라 애 좀 먹었지요.

동산고등학교를 나왔지요. 그 주변에 추억이 많겠어요.  
학교 주변부터 전동, 신포동, 자유공원. 그래도 가장 기  
억에 남는 곳은 야구장이예요. 동산고등학교가 야구 명  
문이잖아요. 고2 때 서울로 이사를 갔는데, 전학 가지  
않고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무렵 개통한 지하철 1호선  
을 타고 인천까지 통학했지요. 정든 친구들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지만, 야구 명문인 동산고등학교에  
대한 애착도 있었어요. 수업을 빼먹고 야구장에 갈 정  
도였으니까요. 언젠가는 우리 학교가 인천고등학교에  
계속 지는 거예요. 박차고 일어나 응원을 주도하다 이  
를 계기로 졸업할 때까지 야구 응원단장을 했어요.

야구를 좋아하는 걸로 유명해요. 연예인 야구단도 하  
지 않았나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연예인 야구팀을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굿프렌즈’ ‘재미삼  
아’ ‘조마조마’ 다 제가 만든 연예인 야구팀이에요. 지  
금까지도 야구는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동산중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을 맡았지요? 인연이 이  
렇게 이어지네요. 우리학교가 80여 년 깊은 역사가  
있는데, 13대 총동문회장이 됐어요. 가문의 영광이지  
요. 사실 서울예술대학 총동문회장도 몇 년째 하고 있  
어 자신은 없었어요. 그런데 역대 총동문회장을 하셨  
던 선배님들이 오셔서 권하니 차마 거절할 수 없고,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자리라고 생각해 기  
쁜 마음으로 맡았습니다. 그래서 요즘 인천에 가는 일  
이 잦아졌어요.

지난해 10월에 웅진군 홍보대사로 위촉됐는데요.  
네. 웅진군 시도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공  
간이 있어요. 사진 작업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연극  
연습실로도 쓰는 작업실이에요. 그곳에 자주 오가다  
보니 웅진군에서 홍보대사를 맡아달라는 요청이 왔  
고, 감사히 받아들였습니다.

시도에 작업실을 마련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언  
젠가 웅진군에서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가는 길에  
옥외 광고판을 제작하면서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  
어요. 이런 카피를 제안했지요. ‘광화문에서 가장 가  
까운 섬’. 실제로 서울에서 40~50분이면 인천 섬에 갈  
수 있어요. 제가 시도에 작업실을 마련한 가장 큰 이  
유예요. 가고 싶은 마음이 커도, 거리가 멀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요.

## interview

오래된 ‘View 카메라’ 앞에서.  
그의 예술적 영역은 연기를 넘어  
사진, 미술 분야를 아우른다.

한 도시에 머무르기엔  
그의 시선이 닿는 세상이 넓고,  
세상을 향한 애정은 깊다.  
그 시작점은  
운명처럼, 다시 인천이다.



적극적으로 웅진군을 알리고 있습니다. 홍보대사로  
서 하고 싶거나 계획 중인 일이 있나요? 인천 섬들  
을 쪽 돌아보며 사진에 담고 싶어요. 땅에서 찍고, 하  
늘과 바닷속에서도 찍고요. 저는 눈에 보이는 그대  
로를 담지 않고 은유적으로 상상의 여지를 남기는  
작업을 선호해요. 특별한 시선으로 인천 섬의 아름  
다움을 담고 싶습니다. 사진 작업이 아니더라도 섬  
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나설 생  
각이에요. 한 25년 전쯤 백령도에 갔었는데, 아직도  
잊히지가 않아요. 세계 어디 내놔도 손꼽히는 경관  
이라고 자부해요.

사진작가로서 그동안 보여준 작품들을 보면, 섬 사진  
작업에 기대가 큼니다. 섬 외에 인천의 매력은 무엇일  
까요. 얼마 전 어릴 적 살던 시내를 쪽 돌아봤는데, 느  
낌이 묘하더라고요. 4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하는 기  
분이라고 할까요. 반갑고 고마우면서도, 개발에서 소  
외된 원도심의 경제적 불이익을 생각하면 씁쓸했습  
니다. 하지만 이게 장점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구  
잡이식 개발의 시대를 지나 도시 재생에 대한 의식이  
성숙한 시기라, 과거가 현재, 미래와 어우러져 함께  
갈 수 있을 테니까요. 인천국제공항의 존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인천은 전 세계와 가장 가까운 도시, 대  
한민국의 관문이잖아요. 어느 나라든 더 편하고 빠르  
게 나갈 수 있다는 건 도시의 큰 매력이에요.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해외에 자  
주 나가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최근 탄자  
니아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후원하면서 주로적으로 참  
여하는 ‘다일비전센터’가 완공을 앞두고 있거든요. 마  
을 사람들에게 의료, 교육, 음식 나눔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동안 아프리카만 20여 차례 다녀왔고, 그  
밖에도 거의 모든 대륙을 다녔습니다. 대부분 긴급구  
호가 필요한 지역들이예요. 20년 넘게 월드비전 친선  
대사를 맡고 있는데, 아프리카에 다녀올 때마다 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매일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을  
목격하니까요. 당장 우리 삶과의 격차를 좁힐 수는 없  
어도, 죽음을 마주한 삶에서는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합니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재능이 있고, 무엇보다 그 모든  
일을 진심으로 해내는 열정과 에너지가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모습을 계속 볼 수 있겠지요? 저는 늘  
비슷해요. 연기하고 학교 나가면서, 주어진 일을  
성실히 해내는 거지요. 동산중고등학교와 서울예술  
대학 총동문회장이라는 무거운 책임도 착실히 지고,  
웅진군 홍보대사의 역할도 진정성 있게 해야지요. 전  
세계에서 구호와 나눔 활동에 참여하면서, 틈틈이 사  
진 작업도 할 거고요. 언젠가 좀 한가해지면 시도 작  
업실에 더 오래 머무르면서 내 안의 것들을 풀어내고  
싶습니다.



## 집집마다 ‘긴급재난지원금’ 받는다!



우리 시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직접 타격을 입은 시민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보듬어주기 위한 생계비 지원과 기업·소상공인 지원은 물론이고 예술계 지원에도 앞장서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을 정리했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인천 시민 위한 긴급재난 지원

우리 시는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 증가에 따른 시급한 생활 안정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를 기다리지 않고 5월 4일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8만8,142가구, 차상위계층 2만971가구 등 10만9,113가구로,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통장 입금 또는 인천e음 카드로 충전 지급한다.

시는 여야 합의 지연으로 정부의 추경 편성이 늦어져 국비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인 만큼, 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등 600억원으로 우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선지급 대상 이외의 113만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지원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본인 신용·체크카드 및 인천e음 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천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미추홀콜센터 032-120



## 긴급생계비 지원

### 특수고용직·프리랜서·무급휴직자 지원

학습지 교사와 관광 가이드,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사업장의 전면 또는 부분 휴업으로 인한 무급휴직자를 위해 최대 50만원까지 인천e음 포인트로 생계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무급휴직자로, 중위소득 100% 이하(건강보험료 약 16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시 일자리경제과 032-440-4232

###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저소득층 약 11만 가구에 한시생활 지원으로 인천e음 카드 플랫폼을 활용해 소비쿠폰 612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9만 가구와 차상위계층 2만 가구로, 법정 차상위계층은 생계·의료 수급자, 생활시설 수급자, 주거·교육 수급자와 차상위자이다. 지원액은 수급 자격과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시 복지정책과 032-440-2924

### 예술인 긴급재난 지원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공연 취소 또는 연기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한다. 시는 인천 거주 예술인이면서 가구원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1가구당 30만원을 지급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생계급여 지원을 받거나 정부 및 지자체의 일자리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는 제외된다.

시 문화예술과 032-440-4012

### 노인일자리 참여자 생계보호

코로나19로 ‘노인 일자리 사업’이 중단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임금을 먼저 지급했다. 3만3,700명의 공익활동형 참여자 중 ‘선지급 후 근로 정산’을 희망하는 2만2,700명의 노인에게 1개월분의 개인별 임금(활동비) 27만원을 우선 지급했다.

시 노인정책과 032-440-2837

### 휴원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17억 1,700만원을 긴급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 2월보다 재원 아동 수 감소에 따른 보육료 수입이 감소해 보육교직원들의 인건비 지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부미지원 어린이집 1,680여 개소로 개소당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시 보육정책과 032-440-2894



긴급복지 확대

아동양육 돌봄쿠폰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만 7세 미만 아동 15만3,899명에게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했다. 아동돌봄쿠폰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지만, 인천 내 상점이라면 대부분 사용 가능하다.

시 아동청소년과 032-440-2848

인천학생 특별장학금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시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장학금 75억원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가구의 중·고등학생 2,000명과 대학생 9,100명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은 50만원, 대학생은 50만~1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접수는 4월 중 마감됐으며, 5월 중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 교육협력담당관 032-440-2172

구직청년 드림체크카드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실업 및 미취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구직 지원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참여자를 5월 20일까지 추가로 모집한다. 드림체크카드는 청년에게 실질적인 취업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졸업 2년 경과 구직청년(가구 중위소득 150%이하)이 해당된다.

시 청년정책과 032-440-2887~8



맞춤형 경제 지원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는 업종\*을 운영 중 매출액 감소 등 영업 피해가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000만원 이내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운송업,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일부 보증제한업종 제외)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47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제조업 및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업, 관광업, 무역업 중 수출입 피해 발생 및 매출액 10% 이상 감소한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금 이차보전(이자차액보전)을 확대 지원한다. 업체당 7억원 이내로 지원하며, 금리는 2%이다.

시 산업진흥과 032-440-4253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3월 사용분부터 6월 사용분까지의 수도요금을 50% 감면한다. 수도요금 감면 대상은 2019년 월 평균 물 사용량 500㎥ 미만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으로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하며, 물 사용량이 500㎥ 이상이라도 대규모 집합상가 등에 소상공인 등이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감면받을 수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032-720-2043

취약계층 희망드림 서민금융 지원

코로나19 피해로 고금리와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금융 취약계층 소상공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한부모·다자녀 가정, 새터민 금융 소외자로, 업체당 2,0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교육서비스업 소상공인 특별금융 지원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을 운영 중으로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별도의 휴원증명서를 발급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1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보증비율 100%, 대출금리 2%대, 연 0.5% 보증요율로, 보증기간은 1년이며 최장 5년까지 1년 단위 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인천신용보증재단 1577-3790

사회적 거리 두기 참여시설 긴급 지원

운영제한 조치 명령 대상시설 중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한 시설을 대상으로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 이미 4월 중에 학원시설 4,729개소에 14억원을 긴급 지원했으며, 이달 안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운영에 제한을 받은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시 안전정책과 032-440-5732

택시 이용 카드수수료 전액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승객 감소로 1월부터 2월까지 매출이 전년 대비 22.8% 이상 감소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업계에 대해 한시적으로 카드 이용 수수료를 100% 지원한다.

시 택시화물과 032-440-3821

광역운송업체 유류비 지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임금체불 및 도산위기에 처한 광역운송업체에 대해 4월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광역운송 10개 업체, 22개 노선, 300대 버스이며, 월별 휴·감차를 제외한 실제 운행 대수를 파악해 지급액 산정 후 30억원 범위 내에서 유류비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시 버스정책과 032-440-3982

항공·항만 분야 경제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타격을 입고 있는 민간항공업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를 위해 항공기 재산세 감면과 지방세 납부 연장 등을 추진한다. 특히 공항·항만에 입점한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시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43



## “나와 이웃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14일’을 준수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해외 입국자들의 확진 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가 의무화되었지만, 이를 위반하고 지역사회를 활보해 물의를 일으킨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와는 달리 '완벽하게' 지침을 준수한 자가격리자의 모범 사례들이 SNS와 커뮤니티 등에서 이슈가 되기도 한다. 최근 불편을 감수하면서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지침을 철저히 지켜 평범한 일상을 다시 누리게 된 가족을 만났다.

글 김윤경 본지 편집위원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연수구에 사는 김완일 씨와  
독일에서 유학 중인 막내딸 은혜 씨.



###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연수구에 사는 김완일(51) 씨는 독일에서 유학 중인 막내딸 은혜(20) 씨가 귀국을 서두르면서 마음이 바빠졌다. 맞벌이 부부이기에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직장에도 피해를 입힐 것 같았다. 일단 공항에는 혼자 마중 나가기로 했다. 오랜만에 만난 딸이지만 반가운 마음을 억누르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소독약을 뿌리고 비옷을 입혔다. 손에는 장갑을 씌우고 마스크를 건넸다. 감염의 위험을 낮추고 외부 공기가 순환되도록 공항에서 집까지 차창을 열고 달렸다. “사랑하는 막내딸을 따듯하게 안아줄 수 없는 상황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은혜도 아빠, 엄마가 야속하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 아이가 확진자라도 되는 날이면, 그야말로 엄청난 일이 발생하는 거니까요.” 은혜가 귀국한 날은 마침 아내의 생일이었다. 하지만 촛불 하나 불지 못한채 아이가 집안으로 무사히 들어가는 걸 보고서야 부부는 미리 마련한 숙소로 발길을 돌릴 수 있었다. 다행히 딸의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고, 자가격리 2주를 무사히 마쳤다. “자가격리 해제 통보 문자를



가족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코로나19를 전파하는 감염원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마음으로 딸의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켰다.



받던 날, 자정이 되자마자 아이를 차에 태우고 가족 모두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독일에서 어렵게 한국행 비행기표를 구했던 상황, 여러 번의 환승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던 모습, 그동안 맘 졸였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가족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코로나19를 전파하는 감염원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마음으로 딸의 자가격리를 철저히 지켰다는 김완일 씨. 모두가 이 같은 마음이라면 코로나19 종료를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 한국의 신속하고 빠른 대처에 깜짝 놀랐습니다

코로나19는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외국인 들에겐 더욱 불안한 존재일 터. 하지만 마리암 커츠(Mariam Kurtz, 46) 씨는 인천에 있어 오히려 안전하 다고 말한다.

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인 남편을 따라 한국에 온 그녀 는 아이 셋과 함께 인천에 살고 있다. 잠시 고향인 탄 자니아에 방문했을 때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그녀는 가족이 있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뿐 이었다. 항공편이 연거푸 취소되는 바람에 간신히 한 국행 티켓을 구입한 그녀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안도감이 몰려왔다고. “보호 장비를 착용한 공항 직원 들이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었어 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14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 다며, 자가격리 관련 앱을 휴대전화에 다운로드해 줬 습니다.”

검체 검진과 세관을 통과한 뒤, 남편과 딸을 만났지만 안거나 손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가족들 을 만났다는 사실이 행복했다. 그녀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전담 공무원의 전화를 수시로 받았고, 앱으로 일 일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알림 문자를 매일 받았다. “저 랑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승객 중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마리암 커츠(Mariam Kurtz) 씨와 남편 레스터 커츠(Lester Kurtz) 씨.



받았대요. 그래서 저도 다시 검사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인천의 의료 체계가 바이러스 확산을 어떻 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추적과 모니터링, 배려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과 같이 대응한다면 코로나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그녀는 무엇보다 한국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이 놀라웠다고 한다. “외국 사람들은 사회적 고립과 사 회적 거리 두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요. 한국 사람 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걸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인천의 발 빠른 대처와 실시간 정보 공유, 의료진의 노 력 덕택에 한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그녀는 다 른 나라도 한국처럼 신속하고 현명한 대처로 코로나19 를 극복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 자가격리대상자 생활수칙

✓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해 격리 장소 외에 외출 금지

✓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방문은 닫은 채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하기

식사는 혼자서 하기

가능한 혼자 이용하는 화장실과 세면대가 있는 공간 사용하기

(공용으로 사용 시 사용 후 락스 등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 또는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하지 않기

✓ 개인 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 사용하기

✓ 개인위생 등 건강 수칙 준수하기



## 해외 입국자! 더 철저하게 관리합니다

우리 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뿐만 아 니라 입국 당일 전수 검사를 실시해 지역 감염 연결고 리를 차단하고 있다. 또 공항에서 각 자치구 보건소 선 별진료소까지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리무진 버스 및 택시 특별 수송을 지원하고 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 도록 해 전담 공무원이 자가격리자의 상태를 수시 확 인·관리하고, GIS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경 찰과 함께 24시간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자가격

리자는 1일 2회 정해진 시간에 본인의 증상을 자가격 리 안전보호 앱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 통신 오류, 자 가 이탈 시 전담 공무원 휴대전화에 경보음이 울려 전 화와 GIS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을 통해 이탈 여부 및 경로를 확인하게 된다. 무단 이탈이 확인되면 즉시 경찰과 함께 현장 출동해 강제 복귀 및 고발 조치하게 되며, 자가격리 이탈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 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외국인은 강제 출국 및 재입국이 금지된다.

## 해외 입국자 특별 수송 및 선별 진료소 운영

**운영 횟수** 1일 2회(19:00, 20:00)

**운영 노선** T2→T1→남·북권역 보건소(각 1대)→검체 채취 대기→자택

**운영 기간** 상황 종료 시까지

**운영 절차**



**공항에서 출발**

인천공항(T2, T1) 해외 입국자 전세버스 탑승 확인 후 출발



**검체 채취**

권역별 보건소 선별진료소 도착 후 검체 채취



**자가격리지로 이송**

검사 완료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지로 이송

## 해외 입국자 전용 안심방역 택시 운영

**운영 대수** 100대(24시간 운영, 인천 거주자만 탑승)

**운영 방법** 택시 내 방호막 설치가 완료된 차량만 운행, 목적지 운행 후 인천공항 복귀 시 방역 실시

**운영 시기** 상황 종료 시까지

**이용 요금** 미터기 요금

**탑승 장소** 인천공항 T1(5C~7C), 인천공항 T2(3D)





## 코로나19 뛰어넘을, K 바이오의 힘



오늘도 당연하게 쓰이는, 무심코 손에 닿는 물건들. 그 누군가가 일터에 틀어박혀 인생을 내어주고 만들어낸 것들이다. 치열하게 삶을 살아내며 인천 그리고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자랑스러운 ‘메이커스’를 만난다. 그 네 번째로 1분 1초,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바이오 기업 ‘셀트리온’을 찾았다.

글 정경숙 본지 편집장 | 사진 제공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개발 중인 셀트리온 연구진(위).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셀트리온 1공장(아래).



CELLTRION



셀트리온 내 생물 반응 장치, 바이오리액터(Bioreactor)

송도국제도시에서,  
꿈은 현실로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새로운 꿈이 움트던 송도국제도시. 트럭들이 설 새 없이 오가며 매립지에 흙을 쏟아붓고, 인공 수로를 만들던 때. 이 도시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지상 21층으로 올라가던 ‘갯벌타워’ 시절. 2002년, ‘셀트리온(Celltrion, Inc.)’은 빛나는 미래를 꿈꾸며 송도국제도시에 당당히 터를 잡았다.

셀트리온은 다국적 제약 바이오 회사를 목표로 설립된 생명공학 기업이다. 셀트리온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2000년대 초, 세계 항체 바이오 의약품 시장은 다국적 제약회사가 특허를 내세워 독점하다시피 했다. 그 거친 시장 한복판에 셀트리온은 겁 없이 뛰어 들었다. 세계 바이오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선 기존 사업 모델과는 다른 비즈니스 전략이 필요했다. ‘신약을 개발하고 생산, 판매’하는 일반적인 비즈니스 방식 대신, ‘바이오 의약품을 생산해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자체 제품을 개발’하는 역발상적인 시도를 했다. 전략은 그대로 적중했다.

‘바이오시밀러(Biosimilar,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라는 개념조차 생소한 시절이었다. 셀트리온은 ‘그들만의 세상’이었던 세계 바이오 시장에서, 세계 첫 항체 바이오시밀러 ‘렘시마(Remsuma)’를 개발, 시장에 선보이며 돌풍을 일으켰다. 세계적인 제약회사도 예상치 못한 창업 10년 만에 맺은 결실이었다.



렘시마

※ 본 기사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서면 인터뷰로 진행했습니다.



세상을 위해,  
수년의 시간을 앞당기다

코로나19(COVID-19). 어느 날 갑자기, 무서운 바이러스가 세상에 퍼지면서 일상을 뒤흔들었다. 셀트리온은 즉각 대응 태세에 돌입했다.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에 착수한 후, 질병관리본부와 협업해 치료제 개발을 위한 38개의 항체 후보군 결과를 확보했다. 현재 이 항체 후보군을 대상으로 세포주 개발 단계에 돌입한 상태다. 이후 인체 임상 물질의 대량생산에 들어가고, 실험 쥐 대상 효력시험 및 영장류 대상 독성시험을 병행해 개발 기간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셀트리온은 연구 인력뿐 아니라 임상 및 생산 인력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오는 7월 중으로 인체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것이 목표다. 신속 진단 키트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5월 말까지 임상을 완료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연구지원담당장 이수영(48) 상무는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그는 2003년 인하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의 원년 멤버로 세포주와 배양공정을 개발하며 셀트리온과 인연을 맺었다. ‘램시마’를 내놓고 시장을 개척할 때도 중심에 있었다. “우리는 이미 독감과 메르스 등의 항체 의약품을 개발한 경험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한다는 사명감으로 모든 연구진이 치료제 개발에 힘쓰는 만큼, 큰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혈을 쏟아부은 노력의 결과다. 항체 치료 신약을 개발하기까지 길게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셀트리온 연구진은 24시간 밤낮으로 연구실에 틀어박혀 개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땀 흘리고 있다. 힘든 시간이지만, 괜찮다. 전 세계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일상을 찾을 수 있다면.



셀트리온 연구진은  
24시간 밤낮으로 연구실에 틀어박혀,  
개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땀 흘리고 있다.  
힘든 시간이지만, 괜찮다.  
전 세계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고  
행복한 일상을 찾을 수 있다면.



셀트리온 연구지원담당장 이수영 상무(아래).

한국 바이오의 개척자,  
세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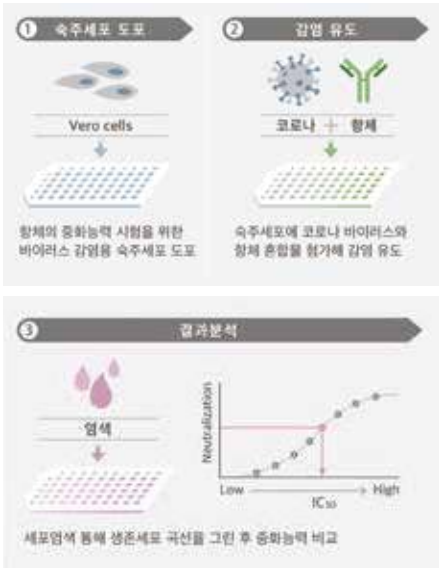
“2030년까지 40조원을 투자해 글로벌 의약품 시장의 선두주자로 나서고, 4차 헬스케어산업에까지 진출하겠다.” 지난해 5월 인천시청에서 중장기 사업 계획 ‘셀트리온 비전 2030’을 발표하던 서정진 회장의 목소리는 힘 있고 당당했다.

오늘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성장 동력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도시다. 특히 송도국제도시시는 바이오산업을 비롯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거점 도시로 성장했다. 셀트리온의 역할이 크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신약, 케미컬 의약품으로 연구개발 영역을 확대하며 글로벌 생명공학 기업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다. 창업 당시 5명에 불과했던 인력도, 2019년 말 기준 2,000명을 넘어섰다. 지난해는 매출 1조1,285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꿈을 현실로 이룬 도시, 인천에 대한 서정진 회장의 애정은 각별하다. “인천은 셀트리온이 글로벌 제약 바이오 기업의 꿈을 가꾸는 데 토양이 되어준 고마운 존재입니다. 셀트리온은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바이오 클러스터에서 앵커 기업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바다 위에 세워진 거대한 도시. 허허벌판이었던 송도가 오늘 국제도시로 성장한 것처럼, 한국 바이오산업의 ‘퍼스트 무버First Mover’ 셀트리온은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 기업을 향해 지금 이 순간에도 거침없이 달려가고 있다.

항체의 바이러스 중화능력 검증 프로세스.





## 그 섬에 가고 싶다

불거리, 즐길 거리 많은 인천, 그 안에서도 진주처럼 숨은 명소가 더 있다는데. 구석구석 보물처럼 반짝이는 그곳을 특별한 가이드가 안내한다. 인천광역시 홍보대사와 함께 떠나는 당신이 몰랐던 인천. 인화대병원 간호사 이예주 씨와 ‘청정 섬’ 강화를 걸었다.

글 전규화 자유기고가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스무 개의 다양한색 코스로 이뤄져 있는 강화 나들길. 인파를 피해 강화의 호젓한 정취를 만끽하기에 그만이다.



### 시민을 지키는 섬과 섬을 지키는 시민

평일 오전, 강화로 진입하는 다리 위가 정체다. 서서히 가까워질 기미를 보이고 있는 사회적 거리처럼, 섬과의 거리도 가까워지고 있는 걸까. 아직은 이르다. 인파를 피해 한가로운 주중을 택한 길지 않은 행렬의 끝자락, 차량에 탑승한 모든 이들의 발열을 체크하는 손길이 분주하다. ‘아차’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긴장은 잠시. 큰 걱정 말라는 듯 건네는 온화한 미소에 한숨을 돌린다.

“전국구 관광 명소인 만큼, 더 각별히 관리하는 모습이 인상 깊어요. 노력이 통했는지 강화는 ‘청정 섬’이란 수식어를 아직까지 잘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네요.”

그 옛날 외세로부터 섬을 지키기 위해 둘러 세운 성곽의 기운 때문일까. 세상에 휘몰아친 바이러스의 공포도 강화를 넘보진 못하고 있다. 그렇다 해도 ‘시민의 안전’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강화는 이 좋은 계절을 따라 섬에 닿을지 모를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대부분의 관광 명소 운영을 중지한 상

태다. 방문객들도 장단을 맞추고 있다. 북적임보다는 호젓함을 찾아 나선 산보객들의 발걸음이 가볍다.

“강화 하면 바다가 먼저 떠오르지만, 고즈넉한 풍경을 벗 삼아 걷기에도 참 좋은 곳이에요. 주말이나 공휴일은 가급적 피하고, 평일에 짬을 내 들르면 몸과 마음에 쌓인 피로감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강화전쟁박물관은 문을 닫았지만, 박물관 앞 자그마한 산책로에는 봄 향기가 가득하다.



## 자연과 역사가 살아 숨 쉰다

이애주 씨 손에 강화의 각양각색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스무 개의 선택지가 놓였다. 강화 나들길이다. 그는 ‘심도 역사 문화길’을 택했다. 갑곶돈대에서 강화버스터미널까지 장장 18km 코스로, 해변 따라 펼쳐지는 아름다운 자연경관에 섬이 품은 보물 같은 문화 유적까지 돌아볼 수 있다.

“목적지까지 여섯 시간 정도 걸어야 하는 긴 코스예요. 오늘은 연미정에 이르는 약 5km를 걸어볼까 합니다. 더 둘러보고 싶은 곳은 안전한 개인 차량을 이용해도 좋아요.”

출발이 늦록지 않다. 갑곶돈대의 절경에 발이 묶였다. 붙어 있는 강화전쟁박물관의 문은 굳게 닫혔지만, 알뜰게도 자연은 활짝 피었다. 훔칠리는 벚꽃 길을 지나 나지막한 언덕 위 정자에 오른다. 봄 햇살에 반짝이는 바다 물결이 평화롭다. 1969년과 1997년. 태생은 달라도 같은 역할을 부여받은 두 개의 다리가 이색적인 정취를 더한다.

“강화는 역사적으로 전략적 요충지였다고 해요. 이곳 갑곶돈대를 포함해 지금은 관광 명소로 널리 알려진 초지진과 덕진진, 광성보 등도 강화의 지난날을 되짚을 수 있는 귀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강화는 예나 지금이나 ‘핫’한 섬이다. 삼국 시대 백제와 신라, 고구려는 번갈아가며 강화를 점령해 요새를 지었다. 고려 시대에는 도읍지로서 40여 년에 걸친 몽골의 침략에 맞섰고, 조선 시대 있었던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라는 큰 전쟁의 무대도 강화였다.

강화 나들길은 코스에 따라 강화 구석구석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연미정이 자리한 월곶돈대에서는 저 멀리 북녘땅의 모습까지 눈에 담을 수 있다.



섬 안쪽에는 성공회강화성당, 용흥궁 등 유서 깊은 유적지들이 자리하고 있다.



대한제국기에 설립된 한옥 형태의 성공회강화성당(사적 제424호) 내부 모습.

## 역사의 힘으로, 시민의 힘으로

지난했던 역사를 기꺼이 감당해 온 자연은 오히려 초연하다. 아름다움과 애잔함이 뒤섞인 오묘한 감정을 뒤로하고 길을 나선다. 뺨 뚫린 바다를 끼고 걷는 이애주 씨의 걸음에 속도가 붙는다. 갑곶성지와 옥개방죽을 거쳐 월곶돈대에 다다른다. 로마 시대 원형광장을 축소해 놓은 듯한 돈대 안에는 연미정이라는 정자와 호위하듯 곁을 지키고 있는 500년 된 느티나무가 있다.

높진 않지만 사방의 풍광을 눈에 담는 데는 부족함이 없다. 북으로는 바다가, 남으로는 너른 들녘이 펼쳐진다. 저 멀리, 북녘땅의 모습도 손에 잡힐 듯하다.

“섬 안쪽으로 들어가면 강화의 다양한 유적지도 둘러볼 수 있어요. 고려궁지와 성공회 강화성당, 용흥궁 등이 가까운 거리에 모여 있어 구경하기 좋아요. 하루빨리 강화 구석구석을 마음 편히 둘러볼 수 있는 날이 오길 염원합니다.”

강화가 그 시절 나라를 지킨 방패였다면, 이

애주 씨는 지금의 위기에 맞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백신이다. 그는 인하대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다. 평소에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최근 바이러스로 인한 중증환자 증가로 몇 배는 더 힘들어졌다. 하지만 현장의 의료진들은 사명감이라는 무기와 국민이라는 아군에 힘입어 하루하루 사력을 다하고 있다.

“국민 생명 보호와 헌신은 의료인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 일원으로서, 동료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전하고 싶습니다. 미력하나마 맡은 바 위치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또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와 생활 속 거리두기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강화 나들길

강화 나들길은 화남 고재형 선생이 1906년 강화의 유구한 역사와 수려한 자연을 노래하며 걸었던 길을 잇고, 잊힌 길을 찾아 섬이 품고 길러낸 자연과 땅위의 모든 것을 연결한 길이다.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선사 시대 고인돌, 고려 시대 왕릉과 건축물,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지킨 선조들의 노력과 지혜가 담긴 유산들과 함께 천혜의 자연이 내린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따라 강화도 일부 관광지의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아래 문의처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의  
(사)강화나들길  
032-934-1906



## DREAM PARK VS

### 버려진 땅의 아름다운 변신

모든 장소에는 저마다의 역할이 있기 마련이다. 그 역할에 충실한 것만으로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다른 차원의 기능까지 수행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다.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의 장소를 친환경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사우스 코스트 보타닉 가든(South Coast Botanic Garden). 꼭 빼놓은 두 곳이 사랑받는 이유 역시 본래의 역할에 또 하나의 기능까지 충실히 해내고 있다는 데 있다.

글 김은경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자연환경관리기술사 | 사진 최준근 자유사진가, 셔터스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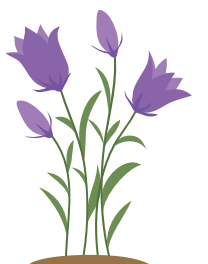


2019년부터는 봄에서 가을까지 상시 개방하고 있는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를 하루 빨리 만나볼 수 있길 기대한다.

### 바다 위에 피어난 꽃

서구 거월로에 자리한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매년 가을 열리는 국화 축제로 잘 알려진 이곳은 인천 시민뿐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도 수많은 방문객이 찾는 나들이 명소다. 봄과 가을에만 한시적으로 개방했던 이전과 달리, 2019년부터는 봄부터 가을까지 상시 개방해 쾌적한 휴식 공간이자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의 특징을 꼽자면, 계절별로 다양한 꽃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이다. 봄에는 벚꽃, 유채, 양귀비, 여름에는 해바라기, 특히 가을 국화는 절정의 아름다움을 뽐낸다. 단지 곳곳 숨은 명소도 다채롭다. 달팽이 광장과 핑크몰리원, 암석원, 메타세쿼이아길 등이 방문객들에게 싱그러움을 선사한다.



## SOUTH COAST BOTANIC GARDEN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는 과거 바닷물이 드나들던 바닷가를 흙으로 메운 매립지다.

드림파크 야생화단지

위치 인천시 서구 거월로  
면적 46만8,578m²  
시설 자연학습관찰지구, 야생초화원, 습지관찰지구 등  
홈페이지 www.slc.or.kr  
문의 032-560-9924



광산에서 쓰레기 매립지를 거쳐 식물원으로 재탄생한 사우스 코스트 보타닉 가든.

VS

사우스 코스트 보타닉 가든

위치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면적 35만m²  
시설 강당, 기념품점, 어린이정원, 허브정원, 영국장미정원, 감각정원 등  
홈페이지 southcoastbotanicgarden.org  
문의 424-452-0920



특히 2016년 큰 인기를 누렸던 드라마 ‘도깨비’의 촬영 장소인 메타세쿼이아길은 남자 주인공이 납치당한 여주인공을 구해줬던 장소로,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를 찾은 이라면 꼭 들르는 필수 코스다. 올해는 연꽃수생식물원과 습지데크로드, 징검다리산책길, 숲속그늘쉼터 등이 추가로 조성되어 방문객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의 가장 큰 특이점은 처음부터 지형이 형성되어 꽃과 나무가 자생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곳은 과거 바닷물이 드나들던 바닷가를 간척 사업을 통해 흙으로 메운 매립지다. 1992년 운영 초기에는 매립장으로 운반하기 전 임시로 쌓아두던 연탄재 적치장으로 사용됐다. 이후 2004년 드림파크 조성 계획이 수립되면서 수도권매립지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와 주변 지역 생활환경 향상 등을 위해 야생화단지로 탈바꿈했다.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의 과거 습지 모습은 고즈넉

한 역새길이 일품인 습지관찰지구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광산, 쓰레기 매립지를 거쳐 식물원으로

드림파크 야생화단지와 꼭 닮은 곳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카운티 자리하고 있다. 광산에서 쓰레기 매립지를 거쳐 식물원으로 재탄생한 사우스 코스트 보타닉 가든South Coast Botanic Garden이다. 로스앤젤레스국제공항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진 이곳은 세계 최초로 매립장 상부에 조성된 식물원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다. 사우스 코스트 보타닉 가든은 평화롭고 아름다운 분위기가 일품이다. 잘 조성된 산책길은 전체 부지와 짜임새 있게 연결되어 있다. 어린이정원, 허브정원, 영국장미정원, 감각정원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한다. 호수와 개울은 오리, 거위, 왜가리 등 다양한 동물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은 1929~1956년 야외 광산으로 운영되던 곳으로, 100만 톤 이상의 천연 규조토를 생산했다. 세월이 흘러 산업이 쇠퇴하자 부지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에 매각됐고, 1965년까지 매립지로 사용됐다. 1961년 처음으로 부지 재활용을 위해 식물원으로 재탄생시키는 노력이 진행됐으며, 개인과 양묘장 등에서 기증받은 식물을 심는 대단위 공사가 시작됐다. 이후 5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쾌적한 식물원으로 잘 관리되고 있다. 안내문을 유심히 읽거나 평평하지 않은 도로와 주차장을 세심히 관찰해야만 이곳이 과거 매립지였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을 정도다.

지역 사회와 상생하며 가치를 높이다

인천의 변두리, 낯새나는 땅으로 인식되어 온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는 친환경 공간 조성을 통해 더욱 활기차게 변모하고 있다. 단순히 물리적인 공

간의 개방을 넘어 지역사회의 재능 기부, 환경 정화 봉사 등 물적, 인적 지원의 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드림파크 야생화단지를 운영하는 공공기관의 노력뿐 아니라 경인아라뱃길 등 주변을 둘러싼 녹지 인프라와 검암역 등 교통 인프라 확충, 대단지 주거 공간 조성, 주변 지역 거주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 의식이 상호 발전을 이룬 결과라 할 수 있다. 주민에게 외면받는 공간이 야생화단지나 식물원으로 사랑받는 장소가 된 것처럼, 우리 생활에 필수적인 환경 기초 시설에 대한 인식도 친환경 시설의 도입을 통해 긍정적으로 개선됐으면 한다. 변화를 위한 노력은 지역 사회 가치 상승은 물론이고 환경, 경제, 사회의 조화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 연결 고리를 통해 인천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인천e음카드,  
전국에서 알아줄 만하네요”



시민 시장  
신승목

ㄹㄹ

인천e음카드처럼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제도를 인천이 전국 처음으로  
시작했다는 건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 늘 고민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ㄹㄹ

글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 사진 김성한 포토저널리스트

“쓸 때마다 돈을 버는 기분입니다. 진작 만들려고 했는데 먹고사는 게 바쁘다 보니 이제서야 발급을 받았네요.”

인천광역시 ‘골목 상권 활성화’와 ‘가계 경제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시작한 지역 화폐인 ‘인천e음카드’ 100만 번째 가입자가 탄생했다. 서구 검암동 주민 신승목(54) 씨가 그 주인공. 이로써 인천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인천e음카드를 갖게 됐다. 소비자는 듬뿍 할인을 받고, 소상공인은 안정된 매출 확보에 카드 수수료까지 깎아주는 인천e음카드. 전국적 붐을 일으키며 지자체들이 너도나도 벤치마킹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표적 혁신행정 사례로 꼽힌다.

“이런 제도를 창의적으로 생각했다는 건 인천시 공무원들이 늘 고민하면서 일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신 씨는 “인천은 최초가 많은 도시인데, 그 전통을 잘 이어 좋은 제도를 만들어냈다”며 “코로나19 대처도 인천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잘하고 있어 인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고 웃음 지었다.

그는 동우공영(주) 공항철도 건축토목관리사업소 차장이다. ‘인천공항 제2터미널~서울역’을 오가는 공항철도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운행되도록 잘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공항철도는 64.3km 구간 14개 역을 갖고 있는데 전 구간을 24시간 꼼꼼히 살펴보는 게 제 임무입니다. 선로는 이상이 없나, 균열이 나지는 않았을까 등등 토목과 건축적 문제를 진단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하지요.”

문경에서 태어나 단양에서 성장한 그가 인천과 첫 인연을 맺은 때는 인천대학교 토목과에 입학하던 1984년. “인천에 처음 왔을 때 상당히 웅장하고 역동적인 도시란 느낌이 들었어요. 이런 도시에 살면 개인적으로도 많이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졸업 뒤 육군3사관학교를 거쳐 대위로 전역한 신 씨는 전공을 살려 건설회사에 입사한다. 이후 교량 전문 시공업체, 대기업 등을 거치며 지금의 직장까지 줄곧 토목건축 관련 일을 해왔다. 그사이 결혼하고 딸·아들을 낳아 24살, 22살의 좋은 청년으로 키워냈다.

3교대로 일을 하다 보니 만성 피로에 시달리는 그이지만 영어책만큼은 절대 손에서 놓지 않는다. “역사에서 일하다 보면 많은 외국인들이 말을 걸어옵니다. 대부분 길을 물어보는 사람들이죠. 처음엔 대충 손짓 발짓으로 알려줬는데 이래선 안 되겠다 싶더군요.” 영어와 공항철도 관리는 직접적 연관이 없지만, 일터에 워낙 많은 외국인들이 오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을 잘 응대해 인천에 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고 싶었다고.

“평생 교육이란 말의 뜻을 체험으로 알게 됐어요. 공부엔 나이도, 시기도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씩 알아가는 재미가 여간 쏠쏠한 게 아니거든요.”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 에겐 새로운 버킷리스트가 생겼다. “일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일하고 퇴직한 뒤엔 갈고닦은 영어 실력으로 가족들과 세계 여행을 떠나고 싶습니다.”





파리 특파원 시절에도  
고향 인천 잊은 적 없어



파리 특파원 시절 자크 시라크 대통령과 단독 회견(왼쪽).  
파리 특파원 시절 개선문 앞에서(오른쪽).



선친(신태범 박사, 1912~2001)께서 다섯 살 되던 해에 조부님(신순성 광제호 함장, 1878~1944)을 따라 인천에 정착하시면서 나는 숙명적으로 인천 사람이 되었다. 몇 차례 서울이나 프랑스에 정착할 갈림길에 놓이기도 했으나 선대의 인천에 대한 애착과 사랑의 영향으로 줄곧 인천에서 살게 되었다.

인천이 서울 부근의 도시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 것은 광복 직후 답동성당에 있던 박문유치원을 다니고 있을 때이다. 어머님(이성자 화백, 1918~2009)을 따라 기차로 서울 구경을 다녀오면서 “이제 인천 갈 시간이 되었다”는 말씀을 듣고 우리 집이 인천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창영초등학교와 인천중학교에 다니면서 인천이라는 도시가 광복 이전에는 배다리 철교를 경계로 일본인촌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던 지역으로 양분되어 있다는 것과 크고 작은 배들이 드나드는 항구도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서울로 다니고 직장도 서울에 있었으나 대학 졸업 후 조선일보 프랑스 주재 특파원 시절을 제외하고는 줄곧 인천을 떠나지 않았다.

선친께서는 외과 의사로 신포동에 ‘신외과’를 개업하고 계셨는데 입원 환자들이 많았고 한밤중에도 병원 문을 두드리며 ‘신 박사’를 찾는 응급 환자들 때문에 한시도 인천을 떠날 수 없었다. 광복 직후 선친께서는 미군이 처음 인천에 상륙했을 때 조부께서 일제강점기 동안 비밀리에 간직하셨던 우리나라 최초의 군함 광제호의 대형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영어로 환영 인사를 했다고 하셨다. 일본식 동명洞名을 우리

글 신용석

언론인 신용석은 할아버지 신순성 함장, 아버지 신태범 박사에 이어 인천에 뿌리 내려 살고 있다. 조선일보 파리 특파원과 2014 인천아시안게임 유치위원장을 지냈다. 현재 제3대 인천개항박물관 명예관장으로 인천 역사문화연구와 보존에 힘쓰고 있다.

‘한 땀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 랠프 월도 에머슨 Ralph Waldo Emerson, 시인



인천중학교 시절.



필자의 저서들(위).  
송학동 자택에서 선친 신태범 박사와 함께(아래).



나라 이름으로 바꾸는 일을 맡으셔서 중국인들의 동네 지나정支那町을 한국인들과도 사이 좋게 지내라는 뜻을 담아 선린동善隣洞으로 바꾸고, 대한제국 시절 화폐를 만들던 전환국이 있던 곳을 전동錢洞으로 개명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격동기에 다방면으로 활동하셨음에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더구나 초등학교 재학 시절 조부님께서 광제호로 입항할 때 축항으로 가서 갑판 위에서 계시던 조부님께 큰절을 올리셨다는 말씀을 전해 듣고는 나를 포함한 우리 가족들이 인천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인연으로 얹혀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다.

고향을 떠나야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고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고향에 대한 향수가 애착으로 승화된다는 것을 실감한 것은 프랑스 특파원으로 일할 때였다. 중학생 때부터 시작한 우표 수집 취미로 파리에 서도 틈나는 대로 우표상을 찾았는데 어느 날 인천의 옛 모습이 담긴 사진엽서를 발견하고 이후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과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 인천의 풍광이 담긴 사진엽서를 본격적으로 사서 모으기 시작했다. 1988년에는 인천에서 처음으로 ‘옛 사진엽서를 통해 본 개항기 인천의 모습과 우리의 풍습’이라는 전시회가 새얼문화재단 주최로 열렸다. 많은 시민들이 전시회를 관람했고 향토사학자이자 시립박물관장을 지낸 조우성 씨도 보러 왔다. 인천 역사에 관심이 많았던 조우성 씨와는 그 후 인천향토사연구회를 만들어 사진엽서 전시회를 격년으로 개최하면서 인천 향토사 연구에 서로 교류하며 지낸다. 인천에서 ‘몸소 겪고 들은 이야기들’을 신문에 연재 후 <인천 한세기>라는 책자로 펴낸 선친께서는 사진엽서전에 나오는 건물들과 길거리에 대해서 전문가적인 설명과 해설을 곁들여주셨다. 조부님에 이어서 3대째 인천에 살면서 인천의 역사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공유하게 되어 마음 뿌듯함을 느끼기도 했다. 선친께서 외과 의사 가운을 벗고 사시던 자유공원 인근 송학로에서 계속 살면서 초등학교 시절 오르내리던 홍예문 계단이나 선생님을 따라 소풍을 갔던 월미도를 걷다 보면 어린 시절의 회상과 함께 귀소본능을 실천하고 있다는 보람 때문인지 마음이 편해진다.

우리 고장 인천은 개항을 통해서 한국의 근대화와 산업화에 기여했고 6·25전쟁 때 상륙작전으로 나라를 구해낸 도시이기도 하다. 인천 사람이라는 데 자부심과 사명을 지니고 평생 살아오면서 선친의 책상머리에 붙어 있던 미국 시인 에머슨의 글귀를 자주 되새긴다. ‘한 땀기의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 힘내라 인천 시민, 내 집에서 즐기는 라이브 콘텐츠!



코로나19,  
힘내라 인천 시민!  
온라인 콘텐츠 보기

홈페이지 [www.incheon.go.kr/health/HE020415](http://www.incheon.go.kr/health/HE020415)  
유튜브 [www.youtube.com/channel/UC960xfXepXP8HHePGvAKw](https://www.youtube.com/channel/UC960xfXepXP8HHePGvAKw)

\* 기타 인천시가 운영 중인 SNS를 통해서도 다양한 콘텐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는 계속된다. 때문에, 시민을 위한 우리 시의 응원도 계속된다. 우리 시는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다채로운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름하여 '코로나19, 힘내라 인천 시민!'. 시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SNS 채널을 통해 집으로 배달되는 다양한 서비스로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을 회복하자.

### 인천시 홍보대사는 '열일' 중

방송인부터 교사, 학생, 간호사, 프리스타일 사커Soccer, 스타트업 청년 대표 등 면면도 다채롭다.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다양각색 '인천 사람'들로 구성된 인천시 홍보대사들이 시민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힘을 보태고 있다. 이들이 참여한 '사회적 거리 두기 릴레이 캠페인'은 약 2만5,000건의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관심을 모았다. 이 밖에도 길어진 방학,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아무놀이 챌린지를 비롯해 프리스타일 축구 강의, 인테리어 조명 DIY(Do It Yourself) 재능기부, 개그맨 5명으로 구성된 필곤아소극장팀의 코믹 영상 등 저마다의 전공을 살린 영상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

### 인천에선 누구나 공간 이동자가 된다

애처롭게도, 사회적 거리 두기의 가장 큰 적은 계절이다. 활짝 핀 인천의 봄을 만끽할 수 없으니. 시민들에게는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낯선 경험일 수밖에 없다.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고 싶다면 공간 이동자가 되자. 인천시 유튜브를 타고 가면 인천의 봄을 눈에 담을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로 폐쇄된 인천 대표 봄나들이 명소 인천대공원, 월미공원, 수봉공원, 자유공원 등을 담은 드론 영상이 펼쳐진다. 박물관으로의 공간 이동도 가능하다. 인천시립박물관 홈페이지([www.incheon.go.kr/museum/index](http://www.incheon.go.kr/museum/index))에 접속하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

행된 크고 작은 전시는 물론이고 검단선사박물관과 한국이민사박물관을 3D 영상으로 둘러볼 수 있다. 우리 시 종합 매거진 <굿모닝인천>의 생생한 취재 현장과 뒷이야기를 담은 콘텐츠도 인기가.

### 라이브로 즐기는 방구석 콘서트

축 처진 몸과 마음을 달래는 데 음악만 한 백신도 없다. 객석은 텅 비었지만 다채로운 뮤지션들이 펼치는 공연의 수준만 큼은 만석이다. 우리 시는 4월 22일을 시작으로 5월 말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유튜브 등을 통해 생중계한다. 첫 공연의 문은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대표 공연으로, 매년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있는 커피콘서트가 열었다. 무관중으로 진행된 4월 22일 공연에서는 블루스 거장 김목경 밴드의 콘서트가 생중계됐다. 송도도 들썩였다. 25일에는 아트센터 인천에서 베토벤 비긴즈 공연이, 28일에는 트라이볼에서 인천 출신 가수와 걸그룹이 출연하는 대중음악 공연이 전파를 탔다. 5월에도 공연은 계속된다. 5월 15일 오전 10시에는 인천시립교향악단 내 챔버오케스트라의 차이코프스키 리부트가 온라인 무대를 달군다. 인천시립교향악단도 5월 29일 오후 7시 30분 제387회 정기연주회를 생중계한다. 때를 놓쳤다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우리 시 공식 유튜브 채널과 홈페이지 내 힘내라 인천 시민 페이지에서 언제든지 다시 볼 수 있다.





IMAGE NEWS

01



#인천 경제의 중심축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 민생 경제 안정화 위한  
#우리 시 피해 극복 지원 정책 가속도

02



#전국 최초 긴급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5차례 걸친 정책자금, 정부자금도 적기 지원  
#초저금리 대출로 경제적 부담 완화

03



#신속대응팀 운영 #관내 은행 위탁보증제 전면 시행  
#현장 실사, 절차 간소화로 빠른 자금 집행  
#섬마을 찾아가는 이동출장소 운영

04



#방역 물품 선제적 지원 #인천e음 캐시백 10% 확대 연장  
#착한 임대료 운동 인천 전역 확산 등  
#모두 함께 극복하는 코로나19

※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http://www.incheon.go.kr)) 또는  
시 소상공인정책과(032-440-424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어르신 독자를 위한 큰 글씨 요약 뉴스 페이지입니다

더 크게 보고, 더 공감하는

# 인천 뉴스 +

- + 우리 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최초로 확진자 발생 지역 내 집단시설 대상 표본검사를 시행했다.
- + 인천시는 해외 입국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입국자 전용 안심 방역택시 100대를 도입했다.
- + 우리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 10% 확대를 6월 말 까지 연장한다.
- + 우리 시가 다문화가정과 홀몸노인 등 475가구를 대상으로 시민들과 시 공무원이 직접 정성을 담아 만든 코로나19 극복 ‘사랑의 면역 키트’를 전달했다.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인천지역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장비가 대폭 확충된다.
- +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들의 채용 일정이 연기되고 있지만 우리 시 공공기관은 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NEWS BRIEF

집단시설 코로나19 표본조사…전국서 처음

우리 시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집단감염 확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 4월 13일부터 24일까지 확진자 발생 지역 내 집단시설 대상 표본검사를 시행했다. 코로나19 표본검사 시행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표본검사 대상은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등 500여 곳이다. 10개 군·구별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주지 주변 집단시설 현황을 파악한 뒤 시설별로 종사자 1명과 환자 2명을 무작위로 뽑아 검체 검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표본검사 결과는 연령·성별·시설·지역에 따른 확진자 발생 빈도 분석, 사회·집단적 특징 분석 등을 거쳐 향후 코로나19 추가 확산에 대비하거나 집단시설을 관리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32

응급실 감염 차단 위한 ‘사전환자분류소’ 운영

우리 시는 인천지역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 4곳에 ‘사전환자분류소’를 운영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응급실 감염문제와 이를 우려한 응급환자의 치료 시기를 놓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환자분류소의 운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중증 응급 환자는 격리된 구역에서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인천지역 중증응급진료센터는 가천대길병원과 인하대병원,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이다.

이외에도 시는 중증응급진료센터 4개소 외에 11개 응급의료기관이 감염병 격리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시설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3252

코로나19 퇴원 환자 전원 재검사 실시

우리 시는 국내외에서 코로나19 퇴원 환자의 재양성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퇴원 환자 전원을 대상으로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부 권고안보다 수위가 높은 인천형 검역 체계로 지역사회 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지역사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퇴원 환자에 대한 촘촘한 관리와 보호를 실시하고 있는 시는 감염병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당분간 고강도 관리를 이어갈 방침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도 퇴원 환자 재검사를 건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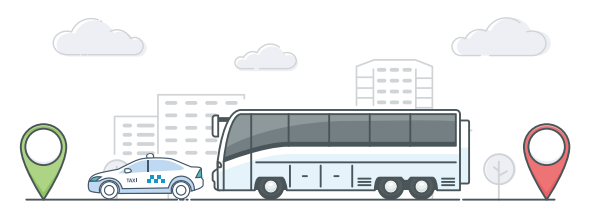
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2732

해외 입국자 전용 안심 방역택시 운행 개시

우리 시는 해외 입국자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11일부터 입국자 전용 안심 방역 택시 100대를 도입했다. 해외 입국자 전용택시는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 운전자와 조수석 사이에 비말 차단 보호막이 설치돼 있다. 해외 입국자 전용택시 승강장은 제1여객터미널과 제2여객터미널에서 각각 안내 요원의 안내에 따라 이용하게 된다.

시는 이미 입국하는 모든 인천 거주 시민을 검사하고 있으며, 인천공항부터 연수구 선학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까지 특별수송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시 택시화물과 032-440-3825



6월까지 인천e음 캐시백 10% 유지

우리 시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 10% 확대를 6월 말까지 연장한다.

당초 시는 3월·4월 두 달간 인천e음의 캐시백을 최대 10%로 상향조정했으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6월 말까지 캐시백 1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50만원 이하 결제 시 캐시백이 10%로 상향되고, 월 50만원에서 100만원 이하 결제 시에는 기존 캐시백 1%가 지속 지원된다.

시 소상공인정책과 032-440-4212

코로나 고통 분담 공공기관장 자발적 급여 삭감

우리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인천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분담하기 위해 시장을 비롯해 시 산하 공공기관장들이 자발적으로 4개월간 최대 30%, 7,300여 만원의 급여를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인천시장 및 각 기관에서 반납한 급여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해 취약계층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데 쓰일 계획이다.

시 인사과 032-440-2612

코로나19 문화 갈증 자동차 극장서 푼다

송도의 크루즈터미널과 인천항 내항 1·8 부두 등 주요 항만시설이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문화생활이 중단된 시민들의 갈증을 풀어줄 자동차 전용 극장으로 변신한다. 인천시와 인천항만공사는 크루즈터미널 내 200대의 차량이 들어올 수 있는 주차장 부지에 영사기와 스크린 등을 설치, 자동차 전용 극장으로 당분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연수문화재단은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옥련동 송도 석산에서 ‘위드(With) 연수! 자동차 극장’을 개최하기도 했다.

인천항만공사 032-890-8000

취약계층에 마스크 22만 매 긴급 지원



우리 시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22만 매를 추가 긴급 지원한다.

마스크는 인천시 자매우호도시가 제공한 마스크(국내 안정성 검사 적합판정)와 시에서 구입한 마스크로 노인치료시설, 정신장애인시설, 생활시설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하고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한다.

시는 지난 3월 초부터 최일선에서 방역활동을 벌이고 있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신부, 요양원, 장애인복지시설, 콜센터 등에 5회에 걸쳐 마스크 69만 매를 배부한 바 있다.

시 예산담당관 032-440-2243

다문화가정·홀몸노인 가구에 ‘사랑의 면역 키트’ 전달

우리 시가 다문화가정과 홀몸노인 등 475가구를 대상으로 시민들과 시 공무원이 직접 정성을 담아 만든 코로나19 극복 ‘사랑의 면역 키트’를 전달했다. 이번 캠페인은 코로나19로 사회복지관이 폐쇄되고 재가복지 서비스와 다문화 프로그램 등이 중지됨에 따라 사회적 연결이 단절된 이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물품과 응원 편지를 전달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열흘 만에 400여 명의 시민들과 공무원이 동참했다. 키트에는 집에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즉석식품과 마스크, 손 소독제, 응원 편지를 담았다.

시 자치행정과 032-440-2444



어린이보호구역 263곳에 무인 카메라 설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이 최근 시행됨에 따라 인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 단속 장비가 대폭 확충된다. 시는 2022년까지 모두 121억원(국비 포함)의 예산을 들여 시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263곳에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우선 시내 초교 주변 90곳에 무인 과속 단속 카메라 133대를 설치한다. 또 올해 하반기 ‘도로교통법’ 개정 후 시행될 ‘스쿨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에 따라 주정차금지표지도 설치하고 노면도 정비할 방침이다.

시 교통정책과 032-440-3866



공공기관 1,326명 채용 확정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들의 채용 일정은 연기되고 있지만 우리 시 공공기관은 채용 규모를 당초 계획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시 산하 16개 기관과 군·구 산하 11개 공공기관은 기존 채용 인원 1,326명 수준을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인천시 산하기관 채용 인원은 인천도시공사 46명, 인천교통공사 298명, 인천관광공사 29명, 인천시설공단 89명, 인천환경공단 94명, 인천의료원 84명, 인천연구원 44명 등 856명이다. 군·구 산하기관 인원은 중구시설관리공단 19명,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30명,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107명 등 470명이다.

시 재정관리담당관 032-440-1683

시내버스 노선 개편, 올 연말로 연기

우리 시는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인천 시내버스 노선 개편 시기를 오는 7월 말에서 12월 말로 연기한다. 버스 노선 개편안을 7월 31일에 시행할 예정이었던 시는 개편 시기가 늦춰진 만큼 10회 정도로 예정했던 시민공청회를 40회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더욱 내실을 기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버스 노선 개편에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소형 순환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고, 교통약자를 위해 지하철과 전통시장, 병원 등을 연결하는 ‘생활 밀착형 복지노선’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 버스정책과 032-440-3952

인천경제자유구역 3차원 공간정보  
외국어로도 서비스

인터넷에 접속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을 한눈에 알 수 있는 ‘IFEZ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가 올 하반기부터 영어와 중국어 등의 외국어로 서비스된다.

IFEZ 3차원 공간정보 서비스는 송도·영종·청라국제도시의 현재와 과거 12년 동안의 자료를 3차원(3D)과 2차원(2D), 항공·가상현실(VR) 등으로 구축한 것으로,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계획과 매각 대상 토지, 연속지적도 등 다양한 정보와 연결해 입체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183

도로먼지 제거 청소사업 시행

우리 시는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보호와 체감환경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 가장 큰 비중(33.4%)을 차지하고 있는 비산먼지의 저감에 20억원을 들여 도로 먼지 제거 청소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20억원을 투입해 68개 구간, 21만5,160km에서 도로청소 차량 29대(고압살수차 20대, 분진흡입차 9대)가 오는 12월까지 청소를 실시하며, 용수는 상·하수 처리수 및 지하철역사 유출수를 사용한다.

시 대기보전과 032-440-3522

문학산성 체계적 보존관리 위한 용역 착수



우리 시는 시 기념물 제1호(1986년 12월 지정)인 문학산성의 체계적인 보존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인천 문학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했다.

이번 인천 문학산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은 기존 지표·발굴조사 결과에 대한 정리·분석을 비롯해 문학산성 성벽, 내부 시설물 등에 대한 정밀현황조사와 성곽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학술대회(세미나) 등을 향후 10개월에 걸쳐 실시하게 된다. 시는 이를 통해 문학산성에 대한 연차별, 구간별 종합정비 계획과 활용계획을 수립한다.

시 문화재과 032-440-4483

영종·용유지역 자전거도로, 편의시설 확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구 영종·용유지역의 기반 및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한다. 인천경제청은 올해 도로 및 자전거도로 조성 등 영종·용유 기반시설 사업과 관련해 중구청에 162억원을 지원한다. 도로사업은 영종지역 잔다리~영종역 도로, 하늘어린이집 진입도로, 영종 소 1~4호선, 용유지역 덕교동 진입도로와 마시안 해변도로 등 5개 노선(신규 2건, 계속 3건)을 신설하거나 확장한다.

또 올해 말을 목표로 영종해안남로에 길이 8.6km, 폭 3m 규모의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있다. 2단계로 올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영종해안북로에도 길이 9.3km, 폭 3m의 자전거도로를 완공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582

영종 박석·은골공원에  
CCTV·공공 와이파이 설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영종국제도시에 있는 박석공원과 은골공원 등 2곳에 폐쇄회로(CC)TV와 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할 계획이다.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과 공원 내 시설물 관리 강화를 위해 사업비 5억3,000만원을 투입해 박석공원 41대, 은골공원 15대 등 총 56대의 200만 화소 고화질 CCTV를 공원 곳곳에 설치하고, 공원 이용객들의 데이터 통신비 절감과 편의 제공을 위해 8월부터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762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해 3억원의 주민참여예산을 들여 올해 상반기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초등학교 6곳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이다. 스마트횡단보도는 LED 바닥 신호등과 보행 신호 음성안내 장치로 구성돼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고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지역 담당 경찰서들로부터 횡단보도 설치 장소를 추천받아 현장 조사를 마쳤으며,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후 효과를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032-453-7484



COUNCIL NEWS

코로나19 대응 의회비 반납



인천시의회가 코로나19 고통 분담을 위해 의회 예산 일부를 반납한다. 반납하기로 한 예산 항목과 금액은 외빈초청여비 3,000만원,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특별위원장 업무추진비 1,260만원, 의원역량개발비 1,000만원 등 총 6,500만원이다. 인천시의회 의장은 “앞으로 의원 해외연수 경비 삭감 등 다른 예산 추가 반납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번 예산 일부 반납으로 코로나19 피해 극복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활발한 활동



인천시의회는 지난 4월 1일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 결산검사위원은 3명의 시의원(강원모, 손민호, 유세움)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변호사를 포함한 7명의 재무 관련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시 결산검사위원은 4월 1일부터 29일까지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시의 주요 사업 추진현황과 시설에 대해 현지점검을 실시했다.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강력 촉구

인천시의회는 정부에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을 요청하는 ‘인천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끼고 있는 지역 특성상 신종 감염병 발생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 전문 병원 설립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매년 5,000만 명의 입국 검역 대상자 중 90%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며 “감염병의 국내 전파를 선제적으로 방어하고 평상시 감염병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 등 신종 해외 유입 감염병 대응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촉구 건의안은 국회와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로 보내진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외교연구회 시동



인천시의회 도시외교연구회는 최근 도시 간 교류를 통한 국제협력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찬 세미나를 열었다. 도시외교연구회는 쌍방 간 교류를 넘어 다자간 도시 네트워크 형식의 도시외교사업을 전개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는 현재 도시외교사업이 자매우호도시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는 데다 여러 가지 제약으로 국가차원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번 세미나에는 손민호, 노태순, 조성혜, 이병래 의원과 인천시 국제협력과장, 남북교류협력담당관 등이 참석했다.

화훼농가 돕기 캠페인 동참



인천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업계 종사자를 위해 관련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의회는 최근 남동구의 한 화원을 방문해 화훼업계 종사자의 의견을 경청했다고 밝혔다. 또 시의회는 화훼업계를 돕기 위한 ‘꽃 선물하기 캠페인’도 추진했다. 인천시의회 의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업계 종사자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싶었다”며 “이를 위해 세계 여성의 날을 기념한 장미꽃 선물하기 행사를 열었다”고 했다. 이어 “시의회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현상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정책 마련은 물론이고 의정 활동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내항재생 뉴딜정책 연구회’ 첫 간담회

인천시의회 ‘내항 재생 뉴딜정책 연구회’는 지난 4월 27일 첫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던 연구모임을 시작하는 의미로 집행부의 현황 보고와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시 주관부서인 재생콘텐츠과의 ‘내항 1~8부두 개발현황’에 대한 보고와 세한대학교 박창호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연구회 소속 시의원 및 유관부서와 함께 합리적인 내항재생사업에 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면 마스크 착용 시민참여 캠페인 펼쳐



인천시의회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면 마스크 착용 시민참여 캠페인을 펼쳤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시의원 및 공직자 모두가 앞장서서 면 마스크 착용을 솔선수범하기로 했다.

< 제262회 임시회 일정 >

- 5월 6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
- 5월 7일~14일  
상임위원회  
-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  
- 조례안 등 안건 심사
- 5월 15일  
제2차 본회의, 폐회  
- 위원회 심사 완료 조례안 등 안건 최종 의결

<인천의회저널> 구독 안내



더욱 자세한 의정 활동 소식은 <인천의회저널>에서 확인하세요. 신청하신 모든 분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인천의회저널>에는 역사, 관광, 지역 소식까지 생생한 정보가 가득합니다.  
문의 의회사무처 ① 032-440-6137~8 ② www.icouncil.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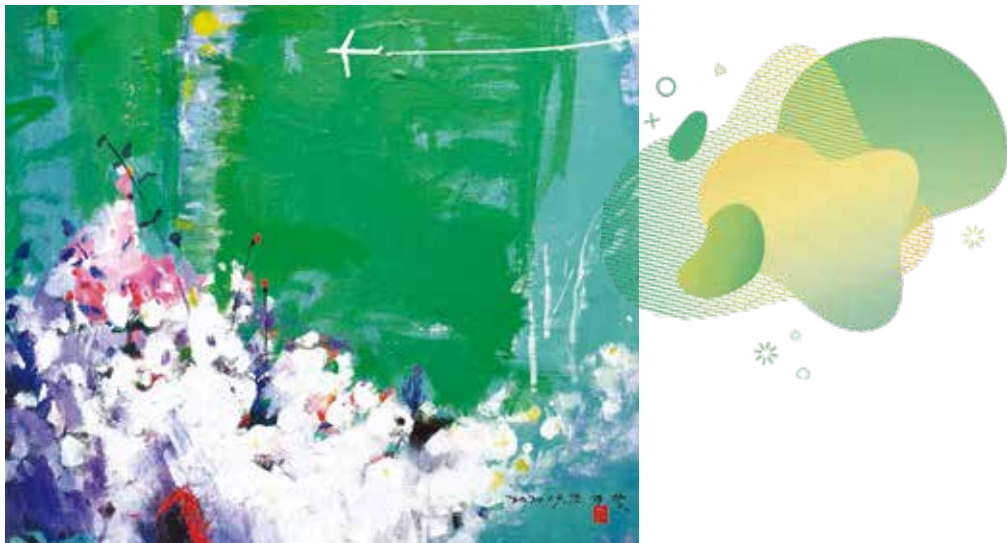


인천 작가의 손끝에서 탄생한 인천의 이야기, 인천 시민 여러분의 색으로 채워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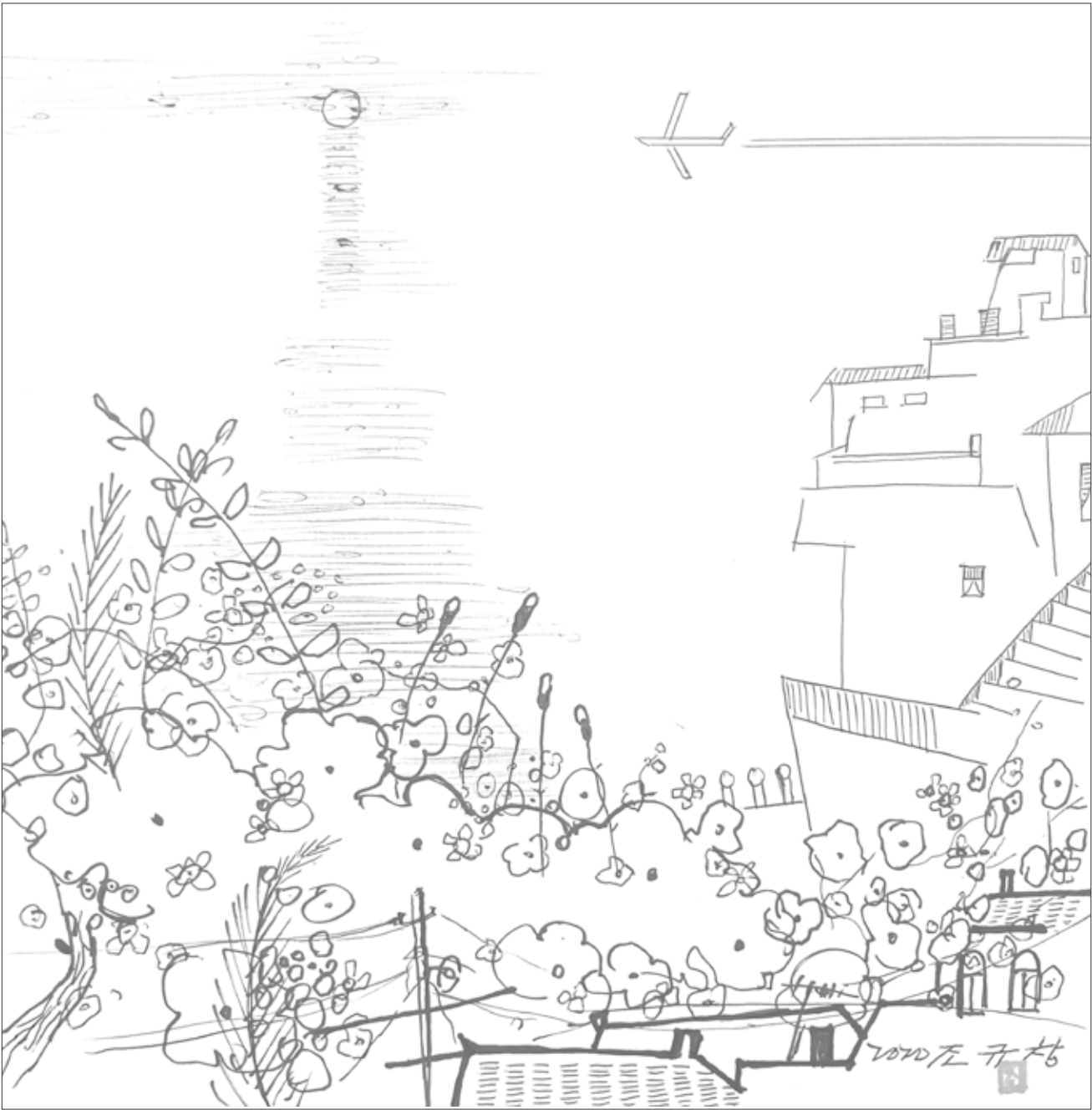
# 인천이 그리다 인천을 그리다

## 작가의 말 우리들의 이야기

수봉공원에서 내려다본 인천 앞바다. 풍성하게 핀 벚꽃과 오밀조밀 붙어 있는 옛스러운 집, 눈앞으로 펼쳐지는 정겨운 풍경이 시선을 사로잡는다. 끝없이 누운 푸른 산, 강, 들녘. 어린 날 동심의 그리움이 오늘도 마음을 흔든다. 해 질 무렵 땅거미 질어질 때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오던 길, 그 모두가 아련히 그리워진다. 그림 속의 작은 물고기, 새, 산과 들 그리고 소담스러운 꽃들. 오늘, 텅 빈 가슴을 안고 그 옛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다. 캔버스를 앞에 두고 마음속에 살아 숨 쉬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들의 이야기 50×45.5cm Mixed media



그림의 선을 따라 드로잉한 후 채색해 보세요. 두 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 4월 드로잉 인천 시민 작가를 소개합니다!



신해원 남동구 방축로



정백호 부평구 부흥로



이해준 연수구 연우금로



허지운 미추홀구 매소홀로



김진서 서구 청라한울로

컬러링 작품을 보내주신 시민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 ‘드로잉 인천’ 보내는 방법

- 1) 우편 : 우)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청  
소통기획담당관실 <굿모닝인천> 독자마당 담당자 앞
- 2) 이메일 : goodmoringic@naver.com
- 3) 기간 : 2020년 5월 20일까지

문의 032-440-8305 ※ 응모하실 때 성명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주소를 꼭 남겨주세요.



이달의 드로잉  
조규창 작가

개인전을 23회 열었다.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및 심사위원, 인천미술대전 대상 및 심사위원장, 경인미술대전 대상 및 초대 작가 특별상 외 다수의 수상, 심사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한국미술협회와 경인미술대전, 인천미술대전 초대 작가 및 구상전과 인천미술전람회 부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있다.



INFO BOX

인천의 문화 행사, 공연, 강좌 등 알찬 소식을 전해 드립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화 ㉡홈페이지 ㉢이메일 ㉣팩스

01 착한 임대인의 따뜻한 마음을 응원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아픔을 나누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등을 감면합니다.

- 지원 내용 : 7월 건축물부 재산세, 지역자원 시설세 등 최대 50% 감면(임대료 인하율에 비례)
-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 6월 1일 이전, 3개월 이상의 임대료를 최소 10% 이상 인하한 경우(약정 체결 포함)
- 단, 3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3개월로 환산해 10% 이상인 경우
- 유흥 주점 등 고급 오락장 등은 제외
- 신청 방법 : 군수·구청장에게 감면 신청
- 문의 : 관할 군·구 세무 부서 재산세팀

02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군·구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점포 재개장을 지원합니다.

- 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점포
- 지원 : 점포 재개장 지원
- 주요 내용 : 업체당 최대 300만 원 이내, 임대료와 인건비 제외한 재개장 소요 비용(재료비, 홍보·마케팅비, 용역 인건비, 공과금·관리비 등)
- 신청 접수 : 각 군·구청 경제 부서
- 문의 : 시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4227

03 뇌 건강, 배움으로 극복해요

인천치매안심학교 ‘두뇌톡톡! 뇌건강학교’에서 치매 및 인지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 [치매 및 인지 건강 체험 프로그램]
- 운영 시간 : 평일 및 2·4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 대상 : 뇌 건강에 관심 있는 시민 및 기관·단체
- 내용 : 뇌 건강 학교 소개, 뇌 건강 체험 존 운영, 치매 예방, 인식개선 등
- 이용료 : 무료
- 신청 기간 : 상시
- 신청 방법 : 전화 접수
- 문의 : 뇌건강학교 ㉠ 032-468-0921

- [경증/초로기 치매 환자 프로그램]
- 운영 시간 : 평일 및 2·4주 토요일 오전 9시~오후 6시
- 장소 : 뇌건강학교(미추홀구 승학길76번길 52-24)
- 내용 : 통합 자극 중재 프로그램, 사회 활동 프로그램 등
- 이용료 : 무료
- 신청 기간 : 상시
- 신청 방법 : 전화 또는 방문
- 문의 : 뇌건강학교 ㉠ 032-468-0921



04 노란 우산이 더 든든해집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자영업자 퇴직금으로 불리는 ‘노란우산공제’에서 가입장려금을 확대합니다.

- 사업 기간 : 12월까지(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 내용 : 월 1만 원(최대 12만 원) → 월 2만 원(최대 12회)
- 지원 대상 :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 지원 비용
- 매월 노란우산공제 부금 납입 시마다 2만 원씩 지급(4월~12월)
- 신규 가입일로부터 최대 12회
- 신청 접수 : ㉡ www.8899.or.kr ㉠ 032-437-8705 등
- 문의 : 노란우산공제 ㉠ 1666-9988

05 당신의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에서 청소년합창단을 모집합니다. 노래에 관심과 소질이 있는 청소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대상 : 인천 관내 10세~15세 청소년 40명
- 부문 :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 신청방법 : ㉡ www.insiseol.or.kr 참조
- ㉢ i-youth@naver.com 접수
- 오디션 : 자유곡 1곡(악보 지참 가능)
- 활동 : 정기 교육, 재능 기부 공연, 발표회 등
- 문의 :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사업팀 ㉠ 032-722-9142

06 인생 제 2막을 설계하세요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예비 노인 시대, 인생 재설계 지원을 위한 생애 설계 상담을 운영합니다.

- 기간 : 12월까지(연중)
- 대상 : 50세 이상 누구나
- 내용 : 생애 설계 상담, 상담 인력(50+ 컨설턴트) 운영 등
- 장소 : JST제물포스마트타운 내 고령사회대응센터 상담실
- 문의 : 인천여성가족재단 032-511-3141

07 위기, 함께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코로나19 위기 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 공모 기간 : 6월 7일까지
- 공모 자격 : 국민 누구나
- 공모 분야 : 제한 없음(예시 : 침체된 지역 경제, 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 학생·학교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 국민적 협력과 범국가적인 연대 관련 제안,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 등)
- 공모 방법 : ㉡ www.krila.re.kr
- 수상작 : 매주 선정 및 시상
- 문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지원과 ㉠ 033-769-9904, 9826

08 건설인들의 땀과 열정의 기록을 공모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제11회 건설 근로자 사진·영상 공모전’을 주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공모 주제 : 건설 근로자를 주제로 자유롭게 표현한 사진 또는 영상
- 접수 기간 : 5월 15일까지
- 신청 자격 : 퇴직 공제 근로 내역이 적립된 피공제자(건설근로자 부문), 일반 부문은 제한 없음
- 접수 방법 : ㉡ www.cwma.or.kr(사진)
- ㉢ cwmaphoto@naver.com(영상)
- 출품 규격
- 사진 : 3,000X2,400pixel, 3MB 이상의 이미지 파일(jpg, gif)
- 영상 : 1,280X720pixel, 15초~90초의 영상 파일(wmv, avi, mp3, mov, mpeg-4)
- 출품 수 : 1인당 3점 이내
- 발표 : 7월 말 예정
- 문의 : 건설근로자공제회 ㉠ 1666-1122



09 창업하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어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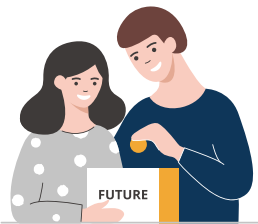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다양한 창업 분야 전문가의 자율적인 정책연구를 지원하는 ‘인천창업포럼 정책연구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사업 목적 : 창업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의 자율적인 정책연구를 통한 지역 내 창업정책에 대한 현안 해결 방안 모색 및 정책제안  
사업 기간 : 10월까지  
지원 대상 : 관내외 창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  
지원 규모 : 총 2개 연구팀(연구팀 지원금 1,000만 원 내외)  
접수 기간 : 5월 1일~15일  
접수 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작성 후 ㉠ jwnam@ccei.kr 제출  
제출 서류 : 신청서, 프로필 양식,  
개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조치 동의서  
문의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경영기획본부 창업육성팀  
㉠ 032-458-5025

10 청년과 기업이 오래 오래 함께하도록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청년 근로자의 조기 퇴사를 방지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1석 5조)인천 재직 청년 드림 포인 트’를 시행합니다.

사업 내용 : 인천시 소재 중소·제조 기업에 근무하는 만 18세~34세 청년 근로자에게 1년간 복지 지원금 최대 120만 원(생애 1회) 지원  
지원 대상 : 청년 근로자 900명 내외  
지원 금액 : 120만 원  
(복지 포인트 90만 원 및 온누리 상품권 30만 원)  
지원 기간 : 12월까지(지원 목표 달성 시 조기 마감)  
접수 기간 : 공고일로부터 지원금 마감 시까지  
신청 방법 : ㉠ young.incheon.kr 참조 ㉡ 1s5b@itp.or.kr 또는 ㉢ 032-724-2253 제출  
문의 : 인천테크노파크  
일자리창업본부 취업지원센터  
㉠ 032-725-3037~9



11 가족 같은 회사를 칭찬합니다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등에게 가족 친화 인증서를 수여하는 ‘2020년도 가족 친화 인증’의 대상 업체를 모집합니다.

대상 : 가족 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공공기관 등  
신청 접수 : 6월 30일까지  
접수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신청 방법 : ㉠ www.ffsb.kr 참조  
문의 : 가족친화인증사무국 ㉠ 02-6309-9042

12 일자리 창출로 세대를 잇습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과 세대 간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인천공항 시니어 일자리 창출 공모 사업을 진행합니다.

신청 자격 : 사회적 가치와 문화 융합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비영리단체 및 기관  
수행 기간 : 7월~2021년 6월  
신청 기간 : 5월 15일까지  
신청 방법 : ㉠ proposal.chest.or.kr 신청 ㉡ incheon.chest.or.kr 참조  
문의 :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사업팀  
㉠ 032-456-3326, 3327

13 사람과 사회를 지키는 착한 인증

국내 지진 발생 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민간 건축주의 자발적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 국민들이 지진 안전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제’가 운영됩니다.

신청 대상 :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 건축물  
신청 기간 : 5월 30일까지  
사업 내용 : 지진 안전 인증 비용 지원 및 인증 마크 부착  
비용 지원 : 내진 성능 평가 비용 최대 3,000만 원, 인증 수수료 최대 500만 원  
문의 : 시 자연재난과 ㉠ 032-440-3369

14 인천시 소식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인천시가 주요 정책과 상황을 문자로 알려드립니다. 수신을 희망하는 분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발송 대상 : 문자 수신 동의한 시민  
발송 내용 : 시의 주요 정책 및 상황  
-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일자리 사업, 생활소식 등  
신청 방법 : 인천시 홈페이지 → 새소식 → 문자 알림 서비스 안내  
문의 : 시 소통기획담당관실 ㉠ 032-440-3042

15 소상공인 대상 경영 환경 개선 지원금 드려요

인천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을 돕고 자생력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 : 인천 지역에서 1년 이상 영업한 영세소상공인 150여 개 업체  
지원금 : 최대 200만 원  
내용 : 점포 환경 개선, 홍보 및 광고, 위생 및 안전 관리 등  
신청 기간 : 5월 11일까지  
문의 : 시 소상공인정책과 ㉠ 032-440-4213

16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구에 보조금 드려요

인천시가 저탄소 친환경 도시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합니다.

내용 : 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를 설치하는 경우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약 1,000여 가구에 총 6억 원의 보조금 지원  
지원 대상 :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한 단독주택 소유자로, 정부의 2020년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에 신청해 승인을 받은 이  
신청 기간 : 10월 30일까지(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 : 시 에너지정책과 방문  
문의 : 시 에너지정책과 ㉠ 032-440-4353

BOOK INFO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저자 김락기



인천문화재단이 세 번째 대중 역사 총서로 대일항쟁기 항일 운동에 헌신했던 인천 지역 투사들의 삶을 기록한 <잊을 수 없는 이들을>을 펴냈다. 민중과 함께 독립운동에 헌신한 인천의 투사들에 관한 기록이다. 저자 김락기 박사는 일제가 감시한 요시찰 인물 30명의 삶을 책으로 엮었다. 책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아야 할 인천 독립운동 지사들의 삶을 대중 역사서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서쪽이 빛난다

저자 이세기

이세기 시인이 신작 시집 <서쪽이 빛난다>를 펴냈다. 책에는 제1부 '언리 해변'부터 제4부 '서쪽이 빛난다'까지 총 54편의 시와 산문 한 편이 담겼다. 시인은 바다에서 살아가는, 또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자신만의 언어로 형상화했다. 빛나는 서쪽 바다, 인천의 덕적군도에서 태어나 바다와 함께 자란 시인의 가족사, 어촌 마을의 풍경과 실상, 섬 주민들의 애환 등이 폭넓게 담겨 있다.

신포동 사람들

저자 김보섭



인천을 대표하는 사진작가 중 한 명인 김보섭 작가가 사진집 <신포동 사람들 : 그리운 옛 얼굴과 정겨운 옛 골목>을 펴냈다. 책에는 많은 시민들의 아련한 삶과 추억이 깃든 신포동에 얹힌 사람과 골목 이야기가 진솔하게 담겨 있다. 30년 넘게 사진을 찍으며 대부분 인천 여러 동네의 사라져가는 것들을 기록하는 것에 온 정성을 다했던 김보섭 작가만의 깊이 있는 작품 세계를 다시금 엿볼 수 있다.



2020학년도 5월 시민을 위한 인천 정책 문제지

<긴급 재난 지원 영역>

▼ 다음 지문을 읽고 아래 물음에 답하세요.

우리 시가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한다. 코로나19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 안정 필요성을 고려했다. 지원금 지급 과정에서는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중위 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10만9,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와 문자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실을 알리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정부 방침과 같이 현금이며, 5월 4일부터 지급된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대상은 인천e음 카드 등으로 대신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에 필요한 예산은 약 60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에 450억 원이 소요되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평균 가구원 수(2.5명)를 기준으로 산정한 약 150억 원이 더해진 금액이다. 정부 추경이 지연됨에 따라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시 재해구호기금과 시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을 활용한다. 선 지급 대상 이외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 계획이며, 이를 위한 자체 온라인 접수 시스템 구축도 진행한다. 또한 10개 군·구별로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를 수행할 인력 배치 계획을 수립, 지원금 신청과 지급에 따른 행정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비한다.

1. 우리 시가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합니다. 중위 소득 몇 % 이하를 대상으로 지급될까요?

- ① 20%    ② 30%    ③ 40%    ④ 50%    ⑤ 60%

2. 다음 빈칸에 알맞은 답은 무엇일까요?

지원 금액은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중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은행 계좌를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대상은 ○○ ○○카드 등으로 대신할 예정이다.

3. 코로나19 관련 우리 시의 긴급 재난 지원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적어주세요.

▶ ‘인천 능력 평가’에 출제된 문제의 답을 순서대로 적어 아래 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리고, 소중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곳 : [goodmoringic@naver.com](mailto:goodmoringic@naver.com)(5월 20일까지)

\* 보내시는 분의 성명과 연락처,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세요.

정부의 적절하고 신속한 정책과 국민들의 소비 활성화로 침체된 내수시장에 활기가 살아나기를 기원합니다. 분명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 지혜롭게 이겨냅시다.

- 김성철(서구 신석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음식 주문할 때 배달앱 대신 직접 전화 드리고 있습니다. 그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을 만큼 힘드실 테지만, 조금만 힘내 주세요. 꽃이 피듯 분명 봄은 다시 찾아옵니다.

- 박예슬(연수구 송도과학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슬픔도 괴로움도 언젠가는 해결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더 큰 전진을 위한 한 보 후퇴라 여기시고 보란 듯 재기하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 이기욱(서구 마전동)

이 상 한 5 월



이상異常한 5월입니다. 이런 적이 또 있었을까요. 지난겨울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상이 봄까지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행입니다. 모두의 노력으로 조금씩 나아질 거란 기대가 현실이 되고 있으니까요. 바이러스는 일상을 몰라보게 바꿔놓았습니다.



최지혜(계양구 봉오대로) 독자의 막내아들 전하준 군

집 안 풍경도 다르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뛰놀고 공부해야 할 아이들이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선생님 얼굴이 아닌 동영상을 보고, 키보드로 소통합니다. 덩달아 엄마들도 바빠졌습니다. 이 낯선 경험이 처음인 건 모두 마찬가지일 테니까요. 한편으론, 집에서나마 학교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 아이들이 있어야 할 곳은 학교라는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일상이 회복되길 희망합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극복하길 응원합니다. 그렇게 다시, 이상理想적인 세상을 맞게 되길 기대합니다.



‘仁生 사진관’은 일상 속에서 겪는 다양한 삶의 모습을 사진으로 들여다보는 코너입니다. 인천을 무대로 살아가고 있는 시민 여러분의 사진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며, 보내주신 사진을 실어드리거나, 직접 찾아가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보내실 곳 : [goodmoringic@naver.com](mailto:goodmoringic@naver.com)

문의 : 시 소통기획담당관실 032-440-8305



# 부처님은 왜 처음 인천으로 오셨을까

글·사진 김진국 본지 총괄편집국장

“김 기자, 보문사에 팔만대장경 인본 3질이 있었다는 내용 알고 있었소?”

2015년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A교수의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요동쳤다. 강화도가 팔만대장경 판각지였음을 뒷받침하는 새롭고도 구체적 증거가 나온 것이기 때문이었다. 초조대장경 조조肇造 1000주년이던 2011년 시작한 ‘팔만대장경’ 탐사 취재 욕기가 다시금 전신으로 쭉 퍼졌다. 인천대학교로 달려가 만난 A교수는 ‘보문사에 대장경 인본(인쇄한 책) 3질을 보관했다’는 중국 <사고전서>四庫全書 ‘고려국대장이안기’ 기록을 보여주며 “팔만대장경을 강화도를 중심으로 판각·보관했다는 명백한 사료”라고 말해줬다. 인본은 경판을 보관한 위치와 가까운 곳에 두는 것이 관례이다. 따라서 대장경판당이 있는 강화도 옆 석모도 보문사에 인본을 보관한 것은 합당한 일이었다.

2011년 한 해 동안 합천, 남해, 대구와 강화도를 종횡무진 돌고 돌아다. 강화도에서 팔만대장경을 1236~1251년 판각한 뒤 150년간 보관했던 사실을 재확인하는 가치 있는 여정이었다. 쌓으면 백두산보다 높고, 한문을 잘 아는 사람이 매일 읽어도 30년이 걸린다는 이 불가사의의한 8만여 장의 경판이 1398년 합천으로 간 건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지만 말이다. 방대한 동아시아 불교 지식과 최첨단 하이테크가 결합해 탄생한 팔만대장경뿐만이 아니었다. 금속활자의 세계 최초(1234) 발명지, 조선 시대 전국 4대 사고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정족사고’, 왕실 도서관인 ‘외규장각’ 등 강화도의 불



전등사 대웅보전

교·인쇄 문화는 실로 대단했다. 인터넷 혁명에 앞서, 집단지성을 만들며 인류의 문명을 급속히 진전시킨 제1의 정보혁명, 인쇄술의 진양지가 강화도였던 것이다.

전등사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사찰’이란 걸 알게 된 시기도 그즈음이다. 381년 중국의 ‘아도화상’은 강화도로 와 진종사眞宗寺를 창건하며 불교를 전파한다. 전등사傳燈寺로 불리기 시작한 시기는 충렬왕의 부인 정화공주가 원나라 공주에게 빼앗긴 남편의 안녕을 기원하며 옥등을 시주한 1282년부터이다.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온 병인양요(1866) 때 전등사는 전투요새로 변신한다. 당시 전등사 스님들과 의병, 전국에서 모여든 범포수들은 정족산에 배수진을 친 뒤 격렬한 전쟁 끝에 외적을 쫓아낸다.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왕실 서적이 전등사 경내 정족사고에 보관돼 있었으므로 더더욱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었다. 그렇게 164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전등사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로, 한 해 60만여 명이 찾는 국민 관광지로 사랑받고 있다. 남해 보리암, 낙산사 흥련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관음도량으로 635년 창건한 보문사 역시 매년 수십만 명이 다녀가는 명찰이다.

코로나19로 어수선했던 가운데 전등사, 보문사를 비롯한 전국 의 사찰들이 4월 30일에 돌아온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행사를 5월 30일로 연기했다. ‘코로나19 청정지역’을 유지해 온 강화도와 함께, 인천은 낮은 발병률을 유지하며 선전하는 중이다. 이는 의료진과 공직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높은 시민의식까지 더해지면서 가능한 결과라 할 수 있겠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혹시, 아도화상을 굳이 인천 강화도로 보내신 부처님의 자비 때문은 아니었을까.



## “아프냐, 나도 아프다”

사진은 공익 광고 탑이 아닙니다. 사반세기 전 문을 닫은 동네 목욕탕 굴뚝입니다. 한창때는 동네 사랑방으로, 은퇴(?) 후에는 지구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네요.

누가 저 높은 곳에 글자를 붙이는 힘든 작업을 했을까요? 얼핏 보면 바로 앞 고물상을 많이 이용하라는 것 같습니다. 자원 순환을 많이 할수록 쓰레기가 줄고, 지구가 덜 아파할 테니까요.

아무튼 얼른 이 지구에서 코로나19가 물러가서 고물상 사장님도 돈 많이 벌고, 우리들도 안 아프고, 지구도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글·사진 백상현 시 소통기획담당관